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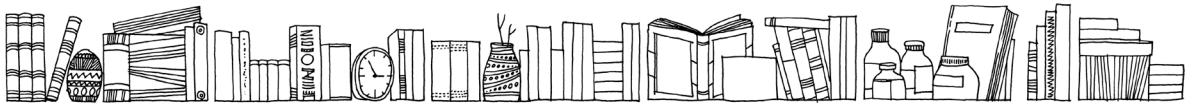
우리 학교에서는 4.19 혁명을 기념한다며 남녀가 짝을 지어 손잡고 마라톤을 뛵니다. 4.19 혁명과 마라톤과 남녀가 손을 맞잡는 것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린 그냥 미리 신청한 짝과 손을 잡고 약 6km의 거리를 마라톤보다는 경보 혹은 산책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4.19혁명 기념 마라톤'. 4.19 혁명에 대해서 퀴즈도 맞추고, 마라톤에 앞서 4.19 혁명에 대한 설명도 듣지만 학생들이 얼마나 4.19 혁명에 대해 생각하고 기념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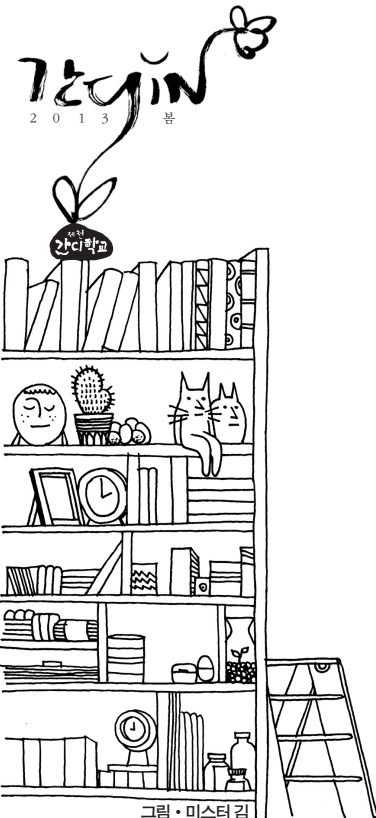
하지만 따뜻한 봄날, 관심 있었던 혹은 좋아하는 이성 친구의 손을 잡고 행복한 오후를 보내는 것. 어쩌면 그런 행복을 느껴 본 사람만이 그런 행복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항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김정환(일상다반사 담당샘)



## 차례



여는글	2	모두 셋겨 내듯 봄비가 내립니다
특집	4	체천간디의 건축학개론
인턴십	8	학교를 벗어나 세상 속에서
	12	배워서 남 줍시다
	14	말년에서야 《간디IN》이라니!
간디인 톡톡	16	성(性)이란 무엇일까?
반가워요 후원인	20	스님이 사는 세상
간디IN이 만난 사람	24	간디인이 만난 사람‘들’
배움 속으로	36	‘반쪽 하늘’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끼리	40	나의 수호천사, 멘토!!
사실	42	동아리, 더 즐겁고 싶지 않은가?
간디IN의 짧은 소식	48	간디인의 짧은 소식
기자 후기	53	

# 모두 씻겨 내듯 봄비가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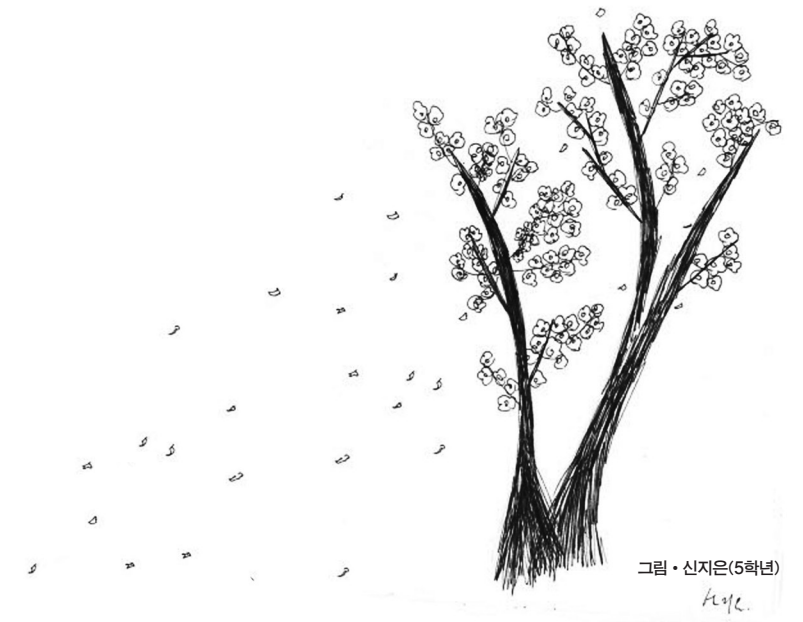
편집장 하한

갑자기 스며든 봄기운 탓인지 이번 《간디IN》 봄 호는 기획회의 때부터 유난히 저기압으로 진행됐습니다. 2013년을 맞아 새로운 ‘일상다반사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2학년 김은수 기자는 여성학을 다루는 수업을 취재하였습니다. 이번 호를 준비하며 평소보다 많이 힘들어 하면서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일상다반사를 나가려 시도했으나, ‘예의상’ 던진 만류의 말들을 듣고는 내심 아쉬웠는지 ‘여름 호 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기사 후기를 제출하며 ‘일상다반사’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진 기자의 떠오르는 셋별 2학년 안효원 기자도 친구따라 강남 갈 ‘뻔’하다가 다시 ‘일상다반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봄 호에는 4학년 한별 기자와 2학년 김민석 기자가 한 팀이 되어 ‘고등 교육관’ 기사를 써 주었고, 5학년 최소은 기자와 3학년 손채은 기자가 한 팀이 되어 ‘간디인이 만난 사람들’ 기사를 맡아 주었습니다. 2인 1조로 이루어진 두 팀은 은근한

라이벌 의식을 느꼈는지 서로를 견제하며 엄청난 기사를 써 주었습니다. ‘간디인이 만난 사람’에서는 10쪽이라는 역대 최대 분량을 뽑아 냈고, ‘고등 교육관’에서는 5명이나 되는 샘플을 인터뷰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결국 분량 조절도 못하냐며 둘 다 편집장에게 혼났지만 말이죠. 이제 3학년이 된 기자들은 사춘기가 찾아왔는지 밖으로 돌았습니다. 김예림 기자는 ‘반가워요 후원인’ 기사를 맡아 편집장을 꼬드겨 주지 스님을 인터뷰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근처 절인 ‘고산사’로 취재(놀러)를 갔습니다. 그날 절밥이 부족해서 주지 스님이 난감해 하셨다는 소문이 돌았지만요. 사진 기자의 두목 장우정 기자는 방대한 양의 사진을 어떻게 편집장에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알집으로 압축하는 법을 깨닫고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압축하며 편집장을 약 올렸고, 일러스트계 거장 이가원 기자는 소식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탈리아로 유학(도주)을 다녀왔습니다. 몇 안 되는

남자 기자인 최형규 기자는 자신의 멘토 기자가 자신을 챙겨 주지 않는다며 ‘우리끼리’ 쪽지에서 멘토를 주제로 글을 썼고, 멘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는 ‘일상다반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상다반사’의 말년. 5학년 홍지인 기자와 유현영 기자는 가장 고참 기자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큰 문제 없이 글을 써 주었습니다. ‘사실’에서 동아리 문화를 다룬 유현영 기자는 잘못된 동아리 문화를 적나라하게 비판을 해 주었지만, 최근 동아리 활동 시간에 얼굴을 보기 힘들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특집’ 기사에서 인턴십을 다뤄 준 홍지인 기자는 내내 고민하는 ‘척’하다가 잘 짜여진 특집 기사를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어느샌가 잊혀진 우리의 담당 교사 28살 김정환 학생도 회의 때마다 고가의 과자를 사다 나르며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지켜본 푸릇푸릇한 신입 기자 2학년 이예슬, 1학년 이한슬 자매는 벌써 걱정스런 기색이 역력합니다.

기자들이 글처럼 정말 가볍게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마감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는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벅찼던 봄날 데이트하기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글을 쓴 기자들에게 이번에도 박수를 보내 주세요. 세상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합니다. 조금 더 작은 것에 집중해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걱정이 꼬리를 물고, 근심이 늘어 가는 오늘, 걱정 근심 모두 씻겨 내듯 봄비가 내립니다. 이런 긴박한 세상에서 조금 여유를 가져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체천간디학교 소식지는 화장실에서, 차 안에서, 안방에서, 우주에서 어디든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보시면 훨씬 좋겠지요? 《간디IN》 2013년 봄 호 이제 시작합니다! ♣





# 제천간디의 건축학개론

김민석 (2학년), 한별 (4학년)

새 생명이 꿈틀대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생명들이 새로운 싹을 틔우느라 분주하듯, 간디학교도 새로 짓는 고등 교육관으로 인해 분주한데요. 덩달아 간디학교의 이런저런 소식을 담은 '일상다반사'도 고등 교육관 신축 과정을 취재하느라 바빠졌지요. 《간디인》은 장기간에 걸친 특집 기사 연재를 기획하며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 봄 호부터 가을 호까지 약 3회에 걸쳐, 고등 교육관이 지어지는 과정을 담은 '고등 교육관 특집 기사'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아심차게 준비한 고등 교육관 특집! 그 첫 번째 기사에서는 고등 교육관 신축에 대한 논의부터 착공 준비 과정까지, 고등 교육관이 지어지는 목적과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루어진 과정 등을 담았습니다.

학교에는, 고등 교육관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로 이루어진 고등 교육관 신축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학부모 운영위원회 내에는 건축 소위원회가 있어, 이 두 부서가 함께 고등 교육관 신축에 관한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 교육관 건축은 작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고등 교육관 신축 위원회의 선생님들과 고등 교육관 신축의 목적과 진행 상황 등을 인터뷰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등 교육관을 짓는 여러 이유 중 첫 번째로, 학교 교육 공간의 부족을 꼽습니다. 지난 겨울 호 사설에서 학교 공간의 부족과 활용의 문제가 제기되었듯, 현재 학교 본관의 공간만으로는 전교생 123명이 생활하기엔 좁습니다.

이전까지 1학기엔 6학년이 인턴십을 나가 학교에

없고, 2학기에 6학년이 학교에 오면 4학년은 필리핀 해외 체험 학습을 나가 있었습니다. 4학년이 필리핀에서 돌아오고 난 뒤부터는 전교생이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했는데, 그나마도 학생들은 학교의 공간이 좁아 불편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부터는 4학년의 필리핀 해외이동 학습 일정이 바뀌어 2학기 내내 전교생이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학사 일정의 변화에 따라 전교생이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족한 교육 공간을 늘릴 필요가 생겼습니다.

또 고등부가 사용할 수 있는 고정된 교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등부는 10명씩 4개의 멘토 반으로 나뉘어 생활합니다. 멘토 반은 아침 열기와 학급 활동을 하기 위한 교실이 필요해 2층의 사회과실, 영어과실, 음악실, 과학실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교실마다 교과 수업이



있어 고등부 학생들이 빈 교실을 찾아가야 하는 일이 잦고, 고등부는 고정된 교실이 없는 상황이라 공간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등 교육관 건축은 고등부 학생들의 고정된 교실을 만들어 줌으로써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신축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교사 대표 필 샘은 '지금까지는 교육 과정을 챙기기 바빴지만 이제 고등과정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중·고등의 성숙도에 따른 공간적 분리(고등 교육관)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된 거예요.'라고 하시면서 '학교 문화를 고등부 학생들이 더 알차게 끌어가면 좋지.'라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중·고의 공간적 분리로 인한 자치문화 활성화도 고등 교육관에 기대하는 점들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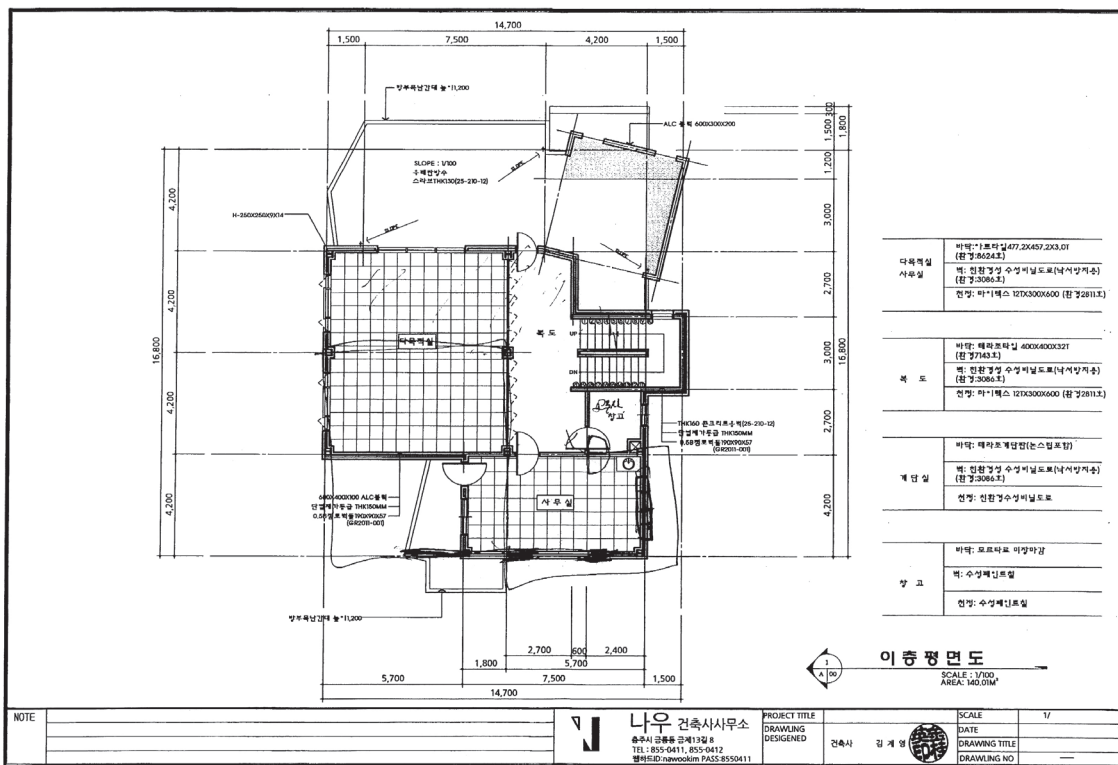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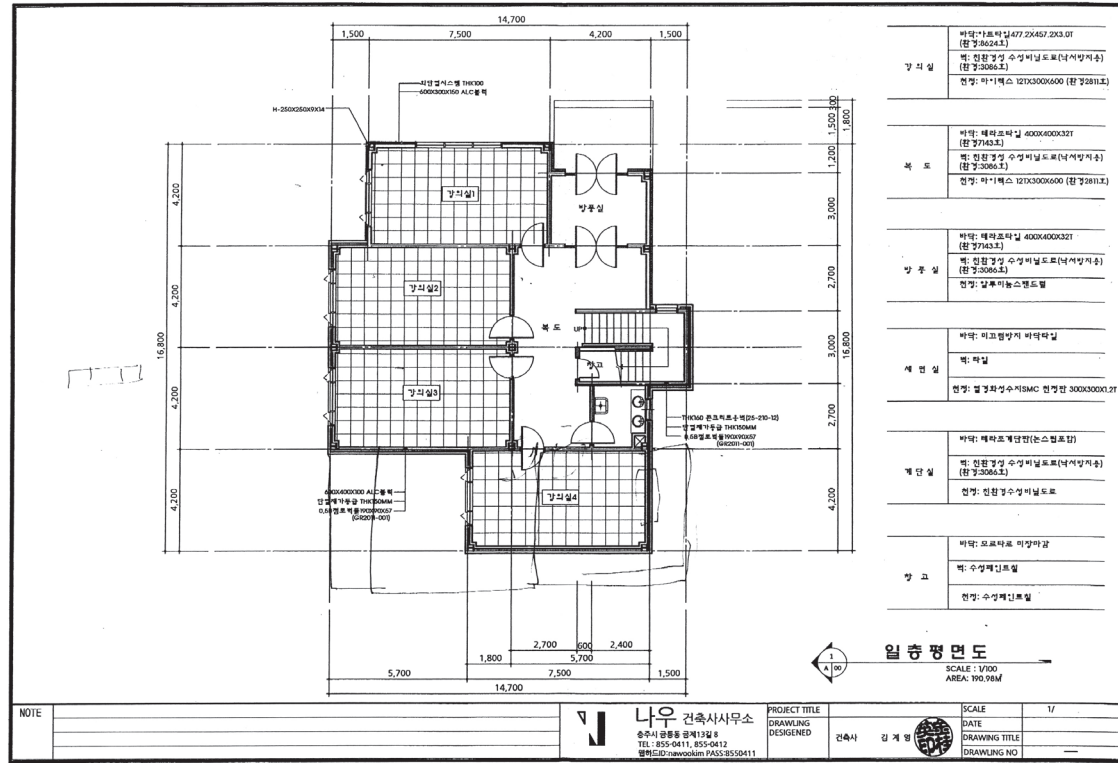
올해 8월 말 완공 후, 2학기엔 공간 사용을 목표로

진행 중인 고등 교육관은 학교 운동장의 왼쪽, 옛 관사 자리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멘토 반 교실 4개와 15~20명 수용 가능한 소강당(6학년 교실 겸) 1개, 교무실, 수도 시설이 들어서고, 옥상도 활용할 계획이랍니다. 고등 교육관은 1층은 50평, 2층은 40평으로 총 90평의 건물이며, 현재 설계도 수정을 거치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되는 만큼 아직 본관 공간 재배치에 대해서는 고민 중입니다. 교육관이 지어지고 난 뒤에 본관에도 공간적 여유가 생기면 음식 작업장의 조리실 등, 공간 수요 조사를 하고 필요한 공간을 새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축 위원회의 고등부 대표 현숙 샘은 고등 교육관에 대해 '컨셉트는 실용적인 건물입니다. 생태적인 것도 있지만 관리하기 쉬운 건물이었으면 하고, 아름답고 '간디'스러운, 억압되지 않고 자유로운





건물이었으면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에서는 걱정되는 부분도 보입니다. 신축 위원회의 경수 쌤은 '학교에서는 이렇게 좋고 튼튼한 건물을 짓길 바라지만, 현재 건물을 짓는 자금이 부족해서 많이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 문제는 신축 위원회에 계신 선생님들과 건축 소위의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교장으로 신축 위원회에 계신 손 쌤은 '서로 나눔의 방식으로 돈이 좀 있으시면 돈을 나눠 주시고,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행사를 하겠다면 행사를 하고, 내가 몸을 한 번 뛰어서 해 보겠다면 몸으로 뛰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각자의 능력들을 모아서 고등교육관 건축이 이뤄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고등 교육관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등 교육관에 대한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누적되어 왔던 요구 사항이 이제야 좀 결실을 맺는 단계에 왔다.'는 손 쌤의 말씀처럼 간디학교는 또 하나의 결실을 맺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보게 될 그 결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름 호에서 또 만나요~ To be continued... 🌻

### 고등교육관 진행 상황

작년부터 고등 교육관 건축 논의가 되어옴.

2차례 모임을 함.

2. 8~3. 9 학생과 학부모의 아이디어 받았음(학생 학부모 아이디어 없었음)

2. 28 건축 사무소 방문(설계도 의뢰)

3. 7 최초 설계도면 도착

3. 16 건축 위원회 회의

3. 26 건축 위원회 회의

3. 27 건축 위원회 회의

4. 4 3차 수정 후 도면 확정

4. 5 건축 위원회 회의

4. 12 건축 위원회 회의

4. 17 건축 위원회 회의

4. 22 실시 내역 설계



그림 • 이가원(3학년)





# 학교를 벗어나 세상 속에서

홍지인 기자(5학년)

제천간디학교는 6년 과정이지만, 학교에 있는 건 다섯 학년뿐입니다. 6학년은 학교 밖에서의 배움을 얻기 위해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간디학교의 인턴십은 흔히 알고 있는 인턴 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학교 철학인 '더불어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학교에서 배운 가치를 곱씹어 보는 동시에 졸업 후 마주하게 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보기도 하고요.

인턴십이 교육 과정에 자리 잡은 지 어언 6년째가 되었습니다. 한 학기를 꽉 채워 했던 인턴십 기간이 점점 줄어들어, 현재 인턴십을 하는 학생들은 13주에서 20주 동안 주 5일, 하루 8시간(주당 40시간)을 학교가 아닌 자기 일터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볼 수도 없고, 해 본 적도 없으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아직 인턴십은 어렵고 생소하게만 느껴지는데요. 학교에서 나와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느껴지는 사회로의 발걸음을 딛고 있는 6학년들을 돌보느라 바쁘신 담임 윤하 쌤을 만나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인턴십이 6년간이나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었는 데도 아직까지도 생소하거나 막막해하는 친구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인턴십은 어떤 과정이고, 학교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중등과정은 각 학년마다 주어진 주제에 따라, 고등과정은 개별적으로 3주간의 움직이는 학교를 가요. 시민 단체, 교육 기관, 문화·예술 단체 등등 다양한 현장들을 찾아서 가는데, 3주는 사실 뭔가를 경험하고 체화하긴 짧은 기간이에요. 인턴십은 6년간의 학교 교육 과정을 스스로 정리하고 삶의 현장에서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 현장 사람들이 왜 그 일을 하고 사는지, 사회적

가치는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인 자기 역할을 가지고 체험해 보는 거죠. '졸업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자기 삶을 '생활인'으로서 모색해 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Q. 그렇다면 인턴십을 하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A. 구체적인 자기 역할을 가지고 실질적인 생활인으로서의 일을 하면서 그걸 통해 배움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회에 나가서 내 꿈을 어떻게 사회 생활과 접목시킬지, 그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지 탐구해 보고 내가 학교에서 6년간 배운 것들과 이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 학교가 '가치'라고 얘기한 것들이 실제 사회에서 적용이

가능할지 시도해 보는 거예요.

Q. 학생들이 본인 희망 진로와 학교 철학 사이의 접점을 찾느라 인턴십 단체 선정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학교 철학에 맞는 단체로 선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저는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학교 철학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접점을 찾는 데에 있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은 있죠. 그렇게 접점을 찾아가는 것도 배움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간디학교의 인턴십은 단순한 직업 체험이 아니고 6년간 학교에서 배우고 생각했던 이상과 가치를 사회 안에서 적용가능한지 실험해 보는 시간이에요. 학교 철학이 '더불어 행복한 삶'이잖아요? 내가 내 일을 함으로써 충분히 즐거운 곳,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Q. 학교에서 지향하는 곳과 지향하지 않는 곳은 따로 있나요?

A. 구체적이진 않고, 때마다 개인이 처해진 입장을 보고 판단해요. 물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요. 영리추구를 위한 기업(회사)은 안 된다, 물론 일정 보수를 받는 곳도 안 되겠죠? 개인이 운영 중인 곳도 피해라. 인턴으로 온 친구를 배려하고 관찰해 주실 멘토 선생님이 계시는 현장을 가야 하는데, 개인이 운영하시는 경우는 자기 작업에 바쁘셔서 잘 못 돌봐 주시더라고요. 또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 업무와 역할이 있는 곳이어야 일상적인 생활인의 삶을 살아 볼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은 내가 가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그림 · 김에림(3학년)

아무리 의미가 좋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 해도 나와 맞지 않고,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인턴십으로서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Q. 같은 단체를 다음 해에 또 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A.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행여나 전에 했던 친구와 자기 스스로를 비교하게 될까 봐 우려되는 것은 있죠. '작년에 누구는 잘했다던데...' 하는 그런 긴장 때문이에요. 하지만 같은 단체를 가더라도 가는 목적과 자기 계획이 정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가느냐에 따라 인턴십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Q. 6학년들은 인턴십이 끝난 뒤 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체적으로 인문학 캠프를

기획하고 진행하잖아요. 인문학 캠프가 인턴십과 연계성이 있나요? 인턴십을 다녀와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시기적인 문제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인턴십을 하면서 세상의 새로운 이면들을 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배움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 단체를 움직이는 동력들을 보면 내가 공부해야 할 게 무엇인지 감이 오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의 공부를 해 보자는 게 인문학 캠프인 거죠. 사회·예술·문학·철학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인턴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잖아요. 인턴십을 하면서 질문이나 도전 같은 것들을 스스로 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알기 위해 인문학 캠프를 하죠.

Q. 학생들이 인턴십을 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A. 구체적인 자기 역할 없이 허드렛일만 들어올 때 가장 힘들어해요. 자기 일이 없으면 뭐다 놓은 보릿자루, 흔히 친구들이 표현하기로는 ‘좁비’가 되는 거죠. 목적 의식을 상실했을 때도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어떤 일이고, 무엇 때문에 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자꾸 묻고 스스로 그것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목적 의식을 상실하게 되어 버리는 거죠.

Q. 인턴십이 교육 과정 안에 있는 6년 동안, 인턴십과 각 학생의 진로는 많이 연결되었나요?

A.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많지 않아요. 저는 6년 교육 과정 중 독립된 과정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중등에서 올라오면서 논문을 쓰고, 고등과정 중 움직이는 학교를 다녀오고 인턴십을 가는 게 본인의 희망 진로에서 많이 벗어나 있진 않다고 봐요. 제가 보았을 땐 논문 주제와 밖에 나가 활동할 때의 주제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졸업 후에 (자기가 갔던 인턴십 단체와) 비슷한 단체에 스카우트되기도 하고, 졸업 후 바로 혹은 몇 년 뒤에 그 단체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Q. 인턴십은 ‘학교를 나와 사회에서 살아가는 연습’이라고 하셨는데, 학생들이 생활에 부딪힐 때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학교의 지원을 받나요?

A. 아니요, 그래서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다고 해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인턴십 중 들어갈 숙식비를 마련하는 친구들이 있죠. 하지만 별로 권장하진 않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바로 인턴십을 들어가려니까 자기 정리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인턴십 기간 중 아르바이트하는 건 적극 반대고요.

Q. 재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그리운 6학년들의 근황인데요, 인턴십을 나가 있는 학생들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A. 인턴십 현장을 다들 잘 고른 것 같아요. 현장에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많아서 배움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학년의 특징상 초등 대안, 방과 후 교실과 같은 교육 관련된 현장이나 문화·사회 단체에 많이 갔더라고요.

Q. 인턴십을 아직까지도 어려워하는 학생들, 인턴십 중인 학생들을 위해 조언을 해 주신다면?

A. 인턴십을 ‘때워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거기에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해 봤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이수해야 되니까 한다고 생각하면 우울하잖아요? 3개월 동안 시간을 흘려 보내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엄청난 기회를 얻은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실수해도, 옳어져도 상관없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턴십을 ‘때우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던데, 한두 시간 빠지고 더하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에게 공부가 되고 밑천이 되는 것들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 ① 정말 자기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아라.
- ② 내가 여기서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항상 묻고 스스로 답을 찾아라.
- ③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하고 귀찮을 정도로 많이 물어 봐라.
- ④ 생활인으로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물음을 던져 봐라.
- ⑤ 절대로 배우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들만이라도 명심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인턴십 현장 따라다니시느라 동분서주하시는 윤하 쌤,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리운 6학년들도 인턴십에서 많이 배우고 학교에 무사귀환하길 바라요~☺

이름	인턴십 단체	위치	역할	인턴십 기간
강아름	오방 놀이터	마포구 망원동	인턴 교사	1월 7일~4월 19일
강태운	민들레 출판사	마포구 성산동	인턴	3월 4일~6월 8일
강한울	나눔 문화	종로구 부암동	학교 보조	3월 11일~6월 7일
권수지	구름산 학교	경기도 광명시	인턴 교사	3월 4일~6월 7일
김태원	인도 '룩빠'	인도 다람살라	인턴(봉사)	3월 15일~6월 15일
노희재	극단 '민들레'	마포구 대흥동	홍보 등	3월 4일~6월 8일
라유희	KOTRA(오사카 지부)	일본 오사카	인턴	3월 10일~6월 7일
문의경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	캄보디아 씨엠립	인턴(봉사)	2월 17일~5월 13일
문장훈	노래 봉사 '참뭉'	마포구 서교동	인턴(봉사)	3월 4일~6월 8일
박종은	삼각산 재미난 학교	성북구 우이동	인턴 교사	3월 1일~6월 7일
신지성	stone&water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인턴	3월 12일~6월 17일
이건희	피난처	동작구 상도동	인턴	3월 4일~6월 7일
이승현	공정무역 카페 '숙영원'	양천구 목동	인턴	3월 15일~6월 17일
임소현	공연 창작집단 '뛰다'	강원도 화천군	인턴	3월 11일~6월 15일
정광	부산 민주공원	부산 중구 영주동	인턴	3월 6일~6월 10일
정지훈	야생 동물 구조 센터(공주대)	충남 예산군	인턴(봉사)	3월 2일~6월 8일
조은솔	부천 '여성의 전화'	경기도 부천시	인턴	3월 4일~6월 8일
최햇님	이너프 살롱	마포구 신수동	인턴	3월 4일~6월 7일
한다면	래그랜느	강남구 일원동	파티쉐 보조	2월 4일~5월 10일





# 배워서 남 줍시다!

박종은 (6학년)

안녕하세요, 6학년 박종은입니다. 저는 우이동에 위치한 초등 대안학교 '삼각산 재미난 학교'에서 보조 교사로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삼각산 재미난 학교'는 올해로 중등과정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초등 대안학교가 아니라 초·중등 대안학교죠. 저는 초등 1학년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교사들이 아주 특별한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제 별명은 '중소리'입니다! 이름에 '중'자가 들어가다 보니 짓게 된 별명입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인기쟁이 중소리'로 통합니다. 학부모님들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아이들도 저라면 사족을 못 쓰거든요, 호호. 아이들이 저에게 "중소리~"라고 부를 때마다 치유되는 기분입니다. 또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매일 보니까, 제 얼굴이 이제 웃는 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

현재 지내고 있는 숙소는 상계동에 위치한 저희 집이에요. 집이랑 인턴십 현장이 가까워서 정말 편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직 힘들어서 적응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루 일과를 말씀

드리자면, 교사들은 아침 8시 30분까지 등교를 해야 해요. 그래서 6시 30분에 기상해서 밥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제가 준비가 많이 느린 편이거든요. 꾸벅꾸벅 졸면서 학교에 도착을 하고, 하나 둘 등교하는 아이들을 반겨 줍니다. 가끔 제가 지각하면 아이들이 절 반겨 줄 때도 있어요. 저의 활동은 1학년 아이들의 시간표에 맞춰 움직입니다. 1학년 아이들은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에 수업은 거의 놀이 위주로 진행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1, 2학년 통합 몸 놀이 수업과 1학년 아이들의 수학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이들 하교 시간인 3시에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나서는 일지 정리와 교무회의 참석,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4월 중순부터는 제가 잘하는 풍물이나 쥘베, 그리고 춤을 가르쳐 보기로 했답니다. 요새는 이렇게 제가 진행하는 수업이 몇 가지 있다 보니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교사 활동을 하면서 우리 쌤들이 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학생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나빠도 참아 주면서,



맞춰 주면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1학년 한 아이가 제 카메라를 부셔서 정말 화가 났는데 저는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이는 막 울고 있고요. 지금은 내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니깐요. 처음엔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 깊은 박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하면서요.

인턴십을 시작한 뒤로 나 자신에게 매일매일 질문을 던집니다. '교사라는 일이 과연 내가 할 만한 일인가?', '나의 경험을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나눠야 할까?' 대개 이런 질문들이죠. (학교에서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는 커녕 다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많았어요.)

4학년 때 필리핀에서 현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경험을 했는데, 그 뒤로 내가 배웠던 것들을 남들에게 나누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궁금해지는 겁니다. '내가 교사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초등학생 아이들을 싫어해서 확신 없이

시작한 인턴십이지만, 이제는 또렷하게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인턴십이 끝나면 졸업이 더 얼마 남지 않게 되니까 약간의 불안함도 있어요. '내가 과연 남들에게 배운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잘살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요. '남들에게 배운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돈은 어떻게 벌지?' 하는 돈만 아는 저질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도 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나갈 문제지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려고요!

남은 인턴십 기간도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들 던지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가끔 간디학교가 너무나 그리울 때가 있지만, 바깥 생활도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습니다! 간디인들, 잘 지내고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 🍷





# 말년에서야 《간디IN》이라니!

강한울(6학년)

사실 간디학교에 다닐 때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간디IN》을 읽으면서 내심 이런 생각을 매번 했다. ‘《간디IN》에 내 글을 실어 보고 싶다.’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나고 인턴 생활을 하고 있던 나에게 ‘일상다반사’의 지인이가 인턴십 중인 나의 생생한 소식을 《간디IN》을 통해 전하고 싶다며, 정말 갑작스러웠지만 고맙게도 나에게 청탁을 해 주었다. 나는 이제 흔한 일상이 되어 버린 인턴십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가장 컸고, 위에서 말했듯 지난 6년간 《간디IN》에 (만화는 올라갔어도) 내 글이 올라가는 건 처음이라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인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나는 종로구에 자리 잡은 사회단체 ‘나눔 문화(www.nanum.com)’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다. 나눔 문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새천년 새벽, 사람과 대안을 화두에 두고 박노해 시인이 만든 단체이다. 지난 13년 동안 정부와 재벌에게 돈을 받지 않았고, 동시에 언론 홍보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나눔 문화 회원들의 순수한 회비로만 운영해 나가고 있다.

지난 겨울 인턴십에 대해 고민하던 중 현숙쌤의 추천으로 나눔 문화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 단체에서 일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쌓으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나눔 문화 활동 중 ‘평화 나눔 아카데미’의 현장 스태프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나눔 학교’에서 친구 교사를 맡고 있다.

여기 나눔 문화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놀랐던 적, 감동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나눔 문화 연구원들이 회원님들에게 쏟는 정성에 가장 놀랐다. 아카데미 준비가 한창일 때였는데, 나는 난민촌 아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 기금 모으기 저금통을 제작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나는 간디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종이를 자르는 일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자신만만했다. 더군다나 자르기 편하게 선까지 그려져 있어서 쉽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다 자르고 보니 종이 크기가 1, 2mm씩 달랐다. 그 정도 오차는 충분히 괜찮을 거라 여기고 연구원한테 갔다 드렸다. 잠시 후 연구원이 종이 크기가 살짝 다 다르니까 다시 다듬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최소의 물자로라도 정성은 최선을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나는 누구한테 채찍을 맞은 것처럼 따끔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대충대충 해온 일도 여기는 다르구나! 하고 느꼈다. 더불어 이런 사소한 것들이 회원님들로부터 우리의 신뢰가 될 수도 있겠다고



(위)나눔 문화·참여연대 등 사회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이라크 전쟁 발발 10주년을 맞아, “한·미 정부는 이라크 참전을 사죄하라!”는 목소리를 내며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사진 - 경향신문, 2013. 3. 19.)  
 (우)이라크 전쟁 당시 일병이었던 미군 브래들리 매닝은 “미군은 명백히 불법 전쟁을 하고 있다”고 위키 리크스를 통해 진실을 밝혔다. 자신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뻔히 알면서 용감하게 평화를 외친 브래들리 매닝 석방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생각했다.

나눔 학교에서의 데뷔 일은 나눔 학교를 시작하는 개학일이었다. 첫날이라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마구 친한 척을 해 가며 접촉을 시도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곤 내가 안쓰러웠는지 같이 말을 붙여 주었다. 원하던 방향으로 간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친한 척 작전(?)에 성공을 했다. 긴 시간은 아니었어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의 순수한 생각과 밝은 모습을 보고 나도 함께 동심으로 빠져들었다. 요즘 하고 싶어도 기회가 잘 없는 ‘유치해지기’를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나누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 나로 하여금 이런 저런 생각을 하게 해 주어서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다. 여기 있으면서 소소한 행복들을 많이 느끼는데, 특히 나눔 학교 아이들과 있을 때 더욱 그렇다.

]그리고 나는 나눔 문화에서 인턴십을 하는 동안 경복궁 역 앞에 위치한 고시텔에서 지내고 있다. 첫날, 나는 내심 ‘설마 그렇게 작겠어?’ 하며 고시텔에 들어갔다. 원장님이 친절하게 방을 안내해 주셨다. “이 방입니다.” 원장님이 가리킨 곳은 무척이나 작은 창고였다. 나는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했고, 원장님은 여기가 맞다고 하셨다. 다시 문을



열고 자세히 보니 작은 창고가 아니라 정말 내 방이었다. 말도 못하게 작았다. 팔을 뻗으면 옆이 닿았고 침대에 누우려 하니 발이 안 퍼져 사선으로 자야 했다. 찾는 물건이 어디에 있든 의자에 앉아서 팔만 뻗으면 다 잡힐 정도였다. 이렇게 작은데도 있을 건 다 있었다. 아이패드만한 TV도 있고, 미니 냉장고도 있고, 그 외중에 소화기도 있었다.

그래도 고시텔에서는 방이 작아서 그런지, 소소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 은근히 재밌다. 밥도 혼자 해 먹어야 한다. 워낙 먹는 걸 좋아해서 굶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해 먹은 요리는 부대찌개, 맑은 콩나물국, 마늘볶음밥, 김치찌개, 계란 프라이ㅋㅋ. 나의 요리 실력에 매번 놀란다. 모두 간디학교의 힘이 아닐까 싶다.

여기 종로구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고시텔이든 나눔 문화든 모두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다. 나눔 문화에서 매주 강연도 듣고 내가 원하는 공부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경험을 쌓아 갈 수 있어서 천금 같다. 고시텔에서는 다른 인턴십 못지않게 생활력을 기를 수 있어서 또 천금 같다. 미래에 크나큰 도움이 될 만한 3개월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나의 인턴십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인턴십 보고서>를 보시길 바란다. ☺

# 성(性)이란 무엇일까?

김수자(제천간디학교 교사)

모든 이가 '성(性)'의 중요성, 청소년 시기 '성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10대의 성 생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제천간디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 수업은 '알아야 할 성-즐기는 성-만들어 가는 성'이라는 기조에 맞추어 수업 내용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성교육 이야기' 쪽지를 통해 제천간디학교에서 성 관련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수업에서 아이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요즘 아이들의 성 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수업 밖에서 어떤 고민을 함께 나눌 것인지를 나누고자 한다.

모든 수업의 첫 질문은 언제나 '성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한다.

수업의 포문을 연 후,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성 이미지 활동지를 적어 보도록 하고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다음의 내용은 그동안 아이들이 작성해 준 내용을 정리해 본 것이다. 중등 1학년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임을 감안해서 읽어 봐 주시길 바란다.

### 성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sex, 이성, 거시기한 거, 남자와 여자, 성관계, 19, 부끄럽다, 야한 거, 동성애, 이효리 김아중... 머릿 속이 하얘진다, 부정적인 시선 같은 거, 화장실, 목욕탕, 성폭력, 폭행, 성 결합, 쪽팔린다, 19금,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

### 나에게 있어 성이란?

누구에게나 있는 것, 성스러운 것, 소중한 거, 성기,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

### 나에게 야한 것은?

19금, 누드, 동영상, 사진, 키스신, 베드신, 좋은 거, good, 생활의 걸림돌, 2인용 꽃무늬 침대, 비디오 가게 빨간 코너, 연애 소셜, 빨간색, 서로 몸 보여 주는 거, 야명 야동 야사 야설, 더러운 거, 허리 감싸는 거, 칩 흐르는 거, 알몸, 성기 결합, 옷 벗는 거, 69, 66, 체위 자세,

### 나에게 야한 장면은

19금, 누드, 노출, sex하는 장면.

### 내가 성적으로 자극받을 때는?

야한 걸 봤을 때, 채널 돌리다가 19 나왔을 때, 야동 볼 때, 극히 드물다, 남자 기숙사, 권지용 이병헌 볼 때,

복근 볼 때, 스킨십할 때, 오빠들이 옷통 벗고 돌아다녀 주실 때, 예쁜 이성 봤을 때, 머리 만져 줄 때, 19금을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생각할 때, 야한 그림 볼 때, 이성 친구 사귄 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을 때, 남자가 날 유혹할 때.

### 나는 성욕, 성 충동이

꽤 있다, 야동 볼 때 일어난다, 적다, 일어난 적 없다, 전혀 없다, 가끔씩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때가 아주 조금 있다, 가끔 든다, 10점 만점에 8점.

###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나는

그냥 참는다, 이야기한다, 자위한다(위자료를 낸다), 야동을 본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 야동 감상, 친구랑 얘기 나눈다, 성욕이 없기 때문에... 연애소설을 본다, 아지는 안 해, 그냥 잊는다, 기억을 없앤다, 잔다, 소리 지른다, 야한 장면을 떠올린다, 다른 일을 한다, 성욕이 뭔지 잘 몰라요, 게임한다,

### 내가 생각하기에 성욕은?

당연하지만 절제할 수 있는 것, 적당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잠생각, 이상하다,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의 하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지만 진짜 모르겠다, 지극히 정상, 성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 장난이 아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거, 변태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스스로 자신이 해소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 야동 보고 싶어 하는 거, 남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성을 볼 때 느끼는 욕구, 필요하긴 해도 많으면 안 되는 거, 참아야지, 억제해야 한다, 탐욕스러운 돼지의 버둥거림, 섹스를 하고 싶어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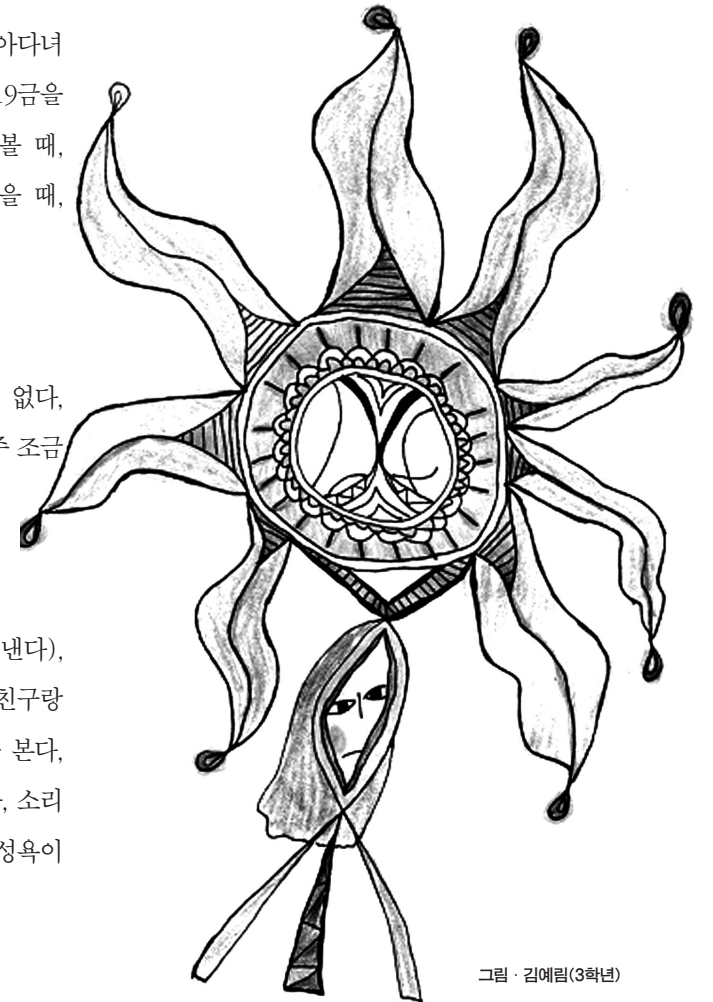


그림 · 김예림(3학년)

### 내가 성적으로 즐거웠던 기억은?

자위, 야동 볼 때,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랑 말했을 때, 남자 기숙사 볼 때, 좋아하는 사람과의 스킨십, 멋진 남자 볼 때, 코난에 괴도 키드가 나올 때, 이렇게 모두와 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잘생긴 오빠가 농구하다가 옷통을 벗었을 때, 캐리비안 베이, '명탐정 코난' 볼 때, 없어요, 초경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놀 때, 이상형 여자를 봤을 때, 첫 자위했을 때, 이성 친구와의 스킨십.

### 내가 성적으로 수치스러웠던 기억은?

다른 사람과 TV 보는데 야한 장면 나올 때, 자위한



후, 다른 사람보다 털이 먼저 나서, 애들이 작다고 한다. 자고 일어나서 안 씻을 때, 야동보다 들켰을 때, 바바리맨을 봤을 때, 쪼그리고 앉았는데 바지 위로 팬티 보일 때, 성 폭력당한 사람의 경험담 들을 때, TV 같은 데서 다른 애들이 당할 때, 19금 볼 때, 사람들 많은데 바지 벗겨진 거, 아저씨들이 지나가면서 훑어보는 거, 길거리에서 막 이상한 아저씨가 쳐다볼 때, 어떤 아저씨가 이상한 말 했을 때, 누군가 내 몸을 만졌을 때, 이성이 내 몸에 대해 말할 때, 성적인 이야기 도중에 내 이름이 나올 때, 여자애들이 내 궁디 광광했을 때, 외모 가지고 뭐라 할 때, 선배들이 옷 벗기고 만남의 광장에 던질 때, 여자애들이 가슴 작다고 놀릴 때, '남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 나는 나의 성 생활에 대해

경험이 없으니 모른다, 결혼한 다음에, 아직은 건전함, 뭐 나중 일.

#### 행복하게 성적으로 관계 맺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결혼한 다음에 관계 맺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 결혼, 원하는 사람과 원할 때 성 관계를 맺는 것, 뒷감당할 수 있는 상황과 적당한 때가 필요하다. 부부나 미래가 약속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 적당한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임신이 되어도 대처할 수 있을 때, 남친 여친 사귀는 것, 자기랑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쌍방 동의 하에, 부부 사이가 서로 원할 때, 영화에서 일어나고 있지.

#### 성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은?

성 관계할 때의 느낌?, 야동 찍는 사람은 꼭 돈을 벌기



그림 · 신지은(5학년)

신지은

위해 하는가?, 어떤 기분일까?, 내가 언제 하게 될까나, 야동 찍는 사람들의 마음, 정확한 피임법, 왜 여자랑 남자 두 개밖에 없나, 이젠 알 건 다 알아요, 사춘기.

#### 내가 성에 대해 혼란스러운 것은?

동성애자, 우리가 다 안전한지, 성 폭행과 성 추행의 차이, 남자와 여자가 성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남자들이 갑자기 덮치는 상상을 했을 때, 과연 성 관계는 몇 살에 처음으로 해야 될까?

#### 우리 부모님의 성 생활은?

잘 모른다, 그런거 없는 줄 아는데, 알아서 잘 하시겠지, 안 하심, 못 봤다, 웹, 19금.

이러한 앞의 활동을 통해 생각해 볼 몇 가지 지점을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성(性) 생활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활동지를 접하면 심중팔구 "성욕이 뭐예요?"를 가장 먼저 묻는다. 교사는 이 질문을 전체 학생들에게 되물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도록 유도한다. 10대들은 본인의 성욕과 성 생활, 성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 성욕, 성 생활(성 생활을 성기 결합을 염두에 둔 성 관계만으로 국한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은 어른들의 것, 매체를 통해 접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며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안 좋은 성 문화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야기 도중 본인이 본 음란물에 대해 말하게 되는데, 그 수위가 꽤나 하드코어적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채팅이나 메일에서 이상한 접근을 많이 받는다. '20대 여자 직딩'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순간 몰려오는 수많은 접근을 아이들은 경험하게 된다. 또한 뉴스 등을 통해 성 매매(아이들은 매춘, 몸 파는 거라고 표현한다), 아동 성 폭력 등 사회의 어두운 성 문화에 대해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성애 혐오 증세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활동지 질문을 보면 중복되는 듯한 질문이 많다. 예를 들어, '성적으로 자극받을 때'와 '성적으로 즐거울 때' 그리고 '나에게 야한 것'과 '야한 장면'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이러한 질문은 의도된 것이다. 그 미묘한 차이를 생각해 보면서 본인의 감정과 느낌을 세세하게 관찰하는 훈련을(감수성 훈련)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차이를 잘 알아 가기도 한다.

충분한 상상과 예상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성적 판타지나 상상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충분히 성에 대해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

수업 마무리에서는 '성'이 sex(생물학적인 성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젠더(사회문화적으로 구분되는 성차)와 섹슈얼리티(개인의 다양한 성적 취향의 존중)를 포함하는 점을 강조한다.

먼저 '성(性)이란 무엇일까?', '성(性) 하면 뭐가 떠올라?'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은 보통 '남자' '여자' '임신' '섹스' '야동' '월경' 등을 말한다.

곧 이어, <what is sexuality?>(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제작)라는 영상을 함께 본다.

"지금 본 영상 중에서 지금 당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야?"라고 물으면, '여자 소방수' '교복 입고 자전거 타는 애들' '같은 이불 덮고 웃는 할머니, 할아버지' '똥똥보 여자' '동성애자 결혼 장면' '얼굴 색깔이 다 다른 가족' 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이 성(性)이다."라는 점을 말해 준다.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여자에게 어울리는 일과 남자에게 어울리는 일이 구분되는 것'

'매번 실패하는 다이어트와 복근 만들기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남자를 좋아할 수도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것'

'누구는 컷볼 만져 줄 때 즐겁지만, 누구는 무릎을 만져 줄 때 즐겁다는 것'

이런저런 섹슈~~~한 이야기들을 던져 주고 나누면서 성을 이해한다.☺



# 스님이 사는 세상

김예림 기자(3학년)

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스님이 계신다고? 한 걸음에 달려가 보니 우리 학교와 그리 멀지 않은 와룡산 고산사에 계신 분이었어요. 인터뷰할 분이 스님이라는 말에 어쩐지 평소보다 더 긴장되고 걱정되었는데, 실제로 만나본 주지스님은 생각했던 것만큼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높고 높은 와룡산 정상 고산사에서 풍경 소리를 들으며 보통 사람과는 다른 스님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를 부탁 드릴게요.

A. 안녕하세요. 저는 1978년, 법주사에 출가해서 예비 승려 과정을 거치고, 1979년 여름 송미산 법주사의 정식 스님이 되었습니다. 1982년에는 성가 대학을 나와 경주 불국사에서 스님을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했어요. 그 후에는 전국 사찰을 많이 돌아다니고, 1400일간 지장 기도를 드리며 지내다 14년 전 고산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법호는 무림(茂林), 법명은 장산(長山)으로 무성한 숲의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이에요.

현재는 충주 문화동 602번지에 사무실을 내서 충주 불교 문화대학 설립 후 3년째 운영 중이에요. 고산사 주지 스님이자 단과 대학의 학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Q. 스님이 출가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군대에 가기 전부터 동방사라는 작은 절에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답지 않게 인생을 왜 사는지 궁금해 했고, 동양 서적도 많이 읽는 등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군대에 다녀오고 나이가 26살쯤 되었을 때 보니까 동방사가 철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정부가 산 속 절들을 철거하는 시기였는데, 동방사도 조그만 개인 절이었기 때문에 철거된 거죠. 그래서 저는 법주사로 출가하게 되었어요.

출가한 지 한두 달이 지나자 누님과 형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형님께서 조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 세수(불교에서 쓰이는 은어로, 절에서 중생 일을 그만두고 내려와 평범하게 사는 것.)해서 장가들고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그러나 난 재산이 필요 없으니 형님이 다



가져가시라고 했죠. 내가 100억이라도 주면 세수해 나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나는 몸만 있으면 되는 이곳에 있겠다고 했어요. 재산이 100억이나 있지 않으니까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죠.(웃음) 난 법주사 670만 평이나 되는 곳에서 사는데, 만 평도 되지 않는 땅에서 갑갑하게 살고 싶지 않으니깐요. 저는 제 체질대로 넓은 절에서 살고 싶더라고요.

Q. 스님이 계시는 이 고산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고산사(高山寺)는 1400년 역사를 가진 아주 오래 된 절이에요. (高山寺) 높은 산에 있는 절이라는 뜻으로, 절을 창건한 스님은 '도성 국사'인데, 그분은 동양에서 풍수지리에 가장 밝은 큰 스님이셨다고 해요. 그분이 이 고산사의 터를 보시고, 1400년 전 고산사를 창건하신 거예요.

Q. 스님은 따로 수입이 있으시거나 재물을 모으시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저희 학교를 후원해 주시나요?

A. 스님도 수입이 있어요.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스님이라고 해서 가게에서 공짜로 얻어먹을 수 없어요. 스리랑카나 태국 등 다른 나라에는 스님한테는 밥값을 안 받으며 무조건 공짜로 주는 제도가 있지만, 우리 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님들도 수입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스님의 수입이 일정하진 않아요. 고산사에는 밥하는 사람과 총무, 기도 스님의(현재는 절에 계시지 않음) 월 생활비가 보통 100 만원이지만, 저는 일정하게 받기보다 필요에 따라 받는 식이에요. 저는 사람이 살면서 수입의 10%는 베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에서 일정하게 주어지는 수입으로 간디학교도 후원하고, 제천 장애



복지관에도 달마다 후원을 합니다. 이러한 절의 재정은 주로 총무가 관리해요. 큰돈이 오가거나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의 일을 집행할 때는 제가 직접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총무가 관리하고, 저에게 보고해 줍니다.

여기서 잠깐!! 절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맛있는 냄새가 나더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절밥이 그렇게 맛있더니, 역시나 누가 고기를 먹었다 해도 부럽지 않을 만큼 맛있는 점심이었습니다. 두부 부침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등 집에서 잘 먹지 않는 것들인데도 맛있게 밥 한 공기를 싹싹 비웠네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Q. 제천간디학교를 알고 후원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제천간디학교를 7년 전(2006년)에 처음 가 봤었어요. 그러다 절에 한두 번씩 오시던 간디학교 식당 선생님인 조은아 보살이 저희 학교 후원을 해 보시면 어떻겠냐 하셨어요. 그래서 달마다 조금씩 간디학교를 후원을 하게 되었죠. 간디학교를 후원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대학교 강의 다니고

염불하느라 학교에는 가 보지 못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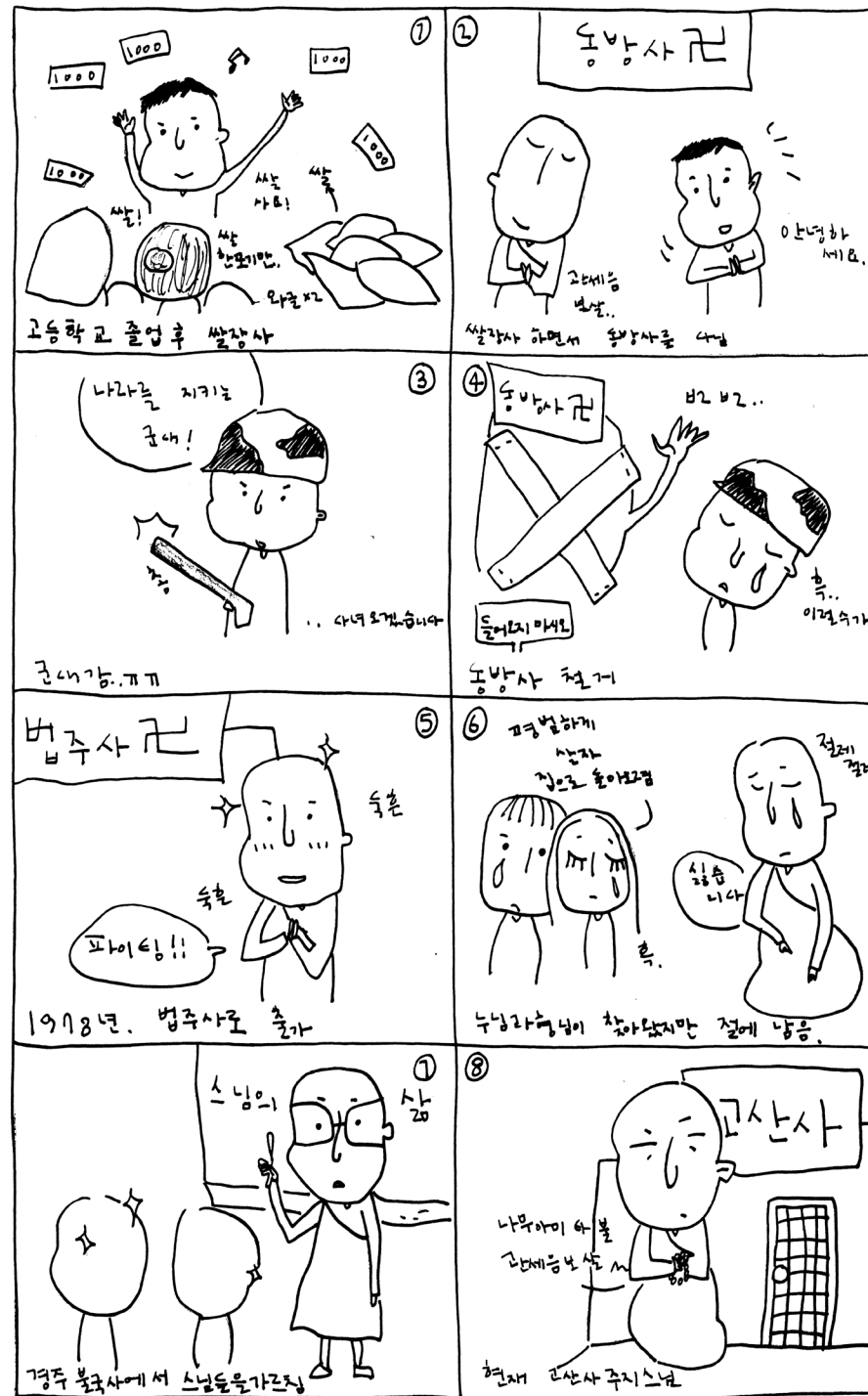
Q. 마지막으로 학교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

A. 사실 지금 이 세상은 바르게만 살아가기엔 힘든 세상이에요. 도둑질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만 잘살기 마련이죠. 그러나 바른 사람은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끌림이 있고, 정의로운 사람은 결코 외면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돈이 많고 명예로운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평범하게 살더라도 정의로운 사람은 저 풀숲에 있는 이름 모를 꽃처럼 아름답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언제나 정의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몇 시간 동안 염불하고 오셨는데도 열심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세요! :D

# 스님의 life

만화 · 이기원(3학년)



<끝>



# 간디인이 만난 사람‘들’

손채은 (3학년), 최소은 (5학년)

개교 이래 10년이 흐르자 간디학교의 샘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디학교가 생겨난 날부터 함께한 샘들도 계시고, 간디학교와 인연을 맺기 위해 새롭게 오시는 샘들도 계시죠. 반면, 다른 곳에서 새롭게 살아가시는 샘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학교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샘들을 만나고 왔는데, 오랜만에 뵙는 샘들 근황!! 궁금하지 않으세요?



쌤! 잘 지내세요?  
☆ 기자 ☆  
5학년 최소은  
3학년 손채은

경향샘근황

덕산에 있는 연구소 판매장에 매니저로 있어.

은미샘근황

지금 아주아주 잘 지내고 있어

서익샘근황

전남고양에서 공부하며 지내

승룡샘근황

지금은 자유와 여유를 느끼며 몸과 마음이 가는데로 즐겁게 살고 있어. 필리핀 간디학교의 생활교사로 지내고 있는데 처음은 나에게 텅서없이 금방 친해졌어. 평소에는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을 주로 먹고 주말에는 바닷가에 스노클링을 하러 가. 또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사람들에게 침뜸봉사를 하러갈 계획이야. 알든 내 삶속에서 처음 누리는 원대한 자유로움 속에 나의 길을 힘차게 걷고 있지.

은혜샘근황

경기도 과천에 있는 푸른숲발도르프학교에 근무하고 있단다. 여긴 12년제 학교고 초중고등학교야. 쌤은 작년 1학년을 맡아 올해 그 아이들과 2학년이 되었던단다. 학교 특성상 한 담임이 8년을 맡고 있어. 긴 여행을 함께 성장하고 배우가는 거지.

## 농사 샘에서 농부로 : 성훈 샘

예전에 간디학교 농사를 책임지시던 분이 계셨죠, 바로 간디학교 농사 샘이셨던 성훈 샘이신데요. 쌤은 현재 전라남도 장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함께 만나러 가 보실까요~?

Q. 간디학교를 떠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A. 남미 인디언 추장의 권리 혹은 특성이 있는데, 그건 말을 하는 것이었대.

대부분의 부족민들은 말을 잘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나 봐. 하긴 단순한 삶을 산다면 말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해. 그런데,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일을 처리해야 하는 추장은 좀 달랐나 봐. 어떤 부족의 공동체에 갔을 때 유난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추장이었대. 말이란 게 그런가 봐. 때로는 책임을 져야 하고 때로는 약속을 해야 하고, 때로는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이니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교사는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직업이지.

그래서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행동, 더 많은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아. 그런 점에서 난 교사로서는 영 안 맞는 옷을 입은 사람이었던 거 같아. 말 따로 행동 따로였으니까. 마을이 학교다, 마을 속에서 학교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마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기만 했으니 말이야. 간디 선생은 마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이데, 정작 마을 바깥을 전전하면서 마을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마을의



필요성, 마을의 중요성만을 이야기하는 내가 조금은 우스워졌지.

마을은 어떤 곳일까? 마을에서 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

더욱이 꼬박꼬박 월급 생활 하는 것이 미안함을 동반한 싫증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지.

Q. 인생의 일부분을 간디학교에서 보내시면서 변하신 점이 있나요?

A. 다른 무엇보다 간디 선생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지.

그전에 난 간디 선생은 그저 '비폭력, 불복종'이라는 조금은 관념적인 말을 하는 종교가로만 알고 있었어. 간디학교에 왔으니 간디 선생을 알아야겠다고 싶어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아 글썽 이 양반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게야. 경쟁과 효율이 중심이 된 지금의 시대에 간디 선생은 100여 년 전 부터 일종의 거대한 전환(?)을 꿈꾸고 있었고 그걸 실천하고 있었지. 간디 선생이 꿈꿨던 건 거대한 정치 체제의 전복 혹은 국가 체제를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소규모의 마을의 자립이었고, 마을 사이의 평등한 연대였던 것 같아.

인도에 70만 개의 자치하는 마을을 세우는 게 간디 선생의 목표였으니 말이야.

그때부터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새롭게 보게 된 거 같아.

그 전부터 학교와 마을에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해 왔지만 정작 내가 생각하는 건 뭔지 잘 몰랐었는데, 간디 선생을 통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 같아.

하지만 막상 마을에 들어와 마을의 성원으로 살고

있는 지금 마을살이는 그다지 잘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Q. 학교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쌤이 있다면?

A. (학생을 호명하면 섭섭한 사람이 있을 거 같아.) 선생님 이야기할게.

역시 경익호 선생님이시지. 내게 농사에 관한 한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충남 홍성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고, 다른 한 분은 경 선생님이셔.

홍성의 선생님이 농사를 짓는 의미를 알려주신 분이시면 경 선생님은 그 의미에 맞게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셨어.

경 선생님께서 배운 건 너무 많아.

간단한 경운기 수리부터 밭 경운법, 돌려짓기의 옛 방법들까지. 제천에 있으면서 경 선생님께서 더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후회될 뿐이야.

경 선생님이 급작스레 은퇴하셨던 이야기, 갑자기 돌아가신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야.

Q. 지금 농사를 지으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농사를 꾸준히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A. 예전엔 어떤 사명감으로 농사를 지었던 거 같아. 특히 학교에 있을 땐.

바쁘게 움직이고 부지런히 몸을 놀리고 그렇게 사는 게 어떤 당연하고 옹당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처럼 농사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농사가 좋아.

봄부터 물에 담가 놓은 논에서 우는 개구리 소리도 좋고, 도롱뇽 알을 보는 것도 신기하고, 가끔 밭에서 마주치는 도마뱀도 지렁이도 신기하고 재미있어. 자연에, 세상에 가장 피해를 덜 주는 것이

농사이기도 한 거 같고, 더욱이 계절에 따라 사니 더 건강해졌어.

Q. 농사를 지으시면서 새롭게 느끼는 점이 있나요?

A. 새롭게 느낀다는 것 보다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지.

농사가 매력적인 건 인간의 한계를 뚜렷이 각인시킨다는 것 같아.

작년에 이 지역에 강력한 태풍이 거의 30년 만에 왔는데, 지붕이 날아가고, 비닐온실이 무너지고 난리가 아니었어. 인간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 와중에 갖게 된 생각은 겸손하게 살자 라는 것이었어. 내가 좀 잘나서 농사 잘 짓게 되었다 싶은 마음이 들면 언제나 재해는 내게 와 있지. 내가 잘 나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잘 봐 주셔서, 좋은 이웃을 만나서 잘하게 된 것들이지.

그런 경험들이 내겐 소중한.

Q. 쌤에게 농사란?

A. '숨'이다. 도반을 만났고, 좋은 이웃을 만났고, 좋은 스승을 만났고, 건강을 얻었으니 숨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없다면 살 수 없는 것!! (음, 그래도 막 지어 내려니 이 질문은 좀 힘들다.)

**아쉽게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메일로라도 소식을 듣게 되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번에는 논이 늘어나서 좀 더 바빠지실 것 같았는데 농사가 잘 되어 이번 해도 풍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이제는 금산간디 교장 쌤이라고 불러 주세요 : 태 샘

제천간디에선 마음공부 선생님이셨던 태 쌤이 금산간디 교장 선생님이 되셨다고 해요! 과연 그 동안 태 쌤 께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다 함께 태 쌤 이야기를 들으러 함께 가 볼까요?

Q. 학교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이 드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내가 08학번의 담임을 끝내고 2009년쯤에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2010년에 수업 하나를 하고 나갔잖아. 그때 내가 학교에 대한 생각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제천간디학교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

Q. 학교를 나오신 직후의 느낌이 어떠셨나요?

A. 이런 건 있었어. 내가 작년까지도 그랬었는데 제천간디라고 하면 나의 학교처럼 느껴졌어. 내가 제천이랑 분리가 안 된 거지. 다른 대안학교도 많이 보러 다니고 했거든. 다른 학교를 보면 그 학교는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제천은 객관적으로 안 보였던 거지. 내가 막 감정이 올라와서 힘들었던 거, 고쳐야 했던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신입견이었던 거지. 그렇게 내가 분리가 안 되어 있다가 지금 조금씩 분리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야.

Q. 지금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데,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A. 대전에서 일을 하다가 금산에 몇 번 강의를 갔다가 연구소에서 와 보라고 해서 2년 정도 있었어. 작년에 내 사명을 발견하고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내가 직접 학교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교장에 출마하게 되었어. 3명이 출마했는데 내가 당선이 됐지. 원래는 내가 선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 선거에 나갔을 때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 이번에는 선거할 때는 안 되더라도 내가 한 번 나가 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되든 안 되든 즐기겠다고 생각하고는 나갔지.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다고 해야 하나?(웃음)

Q. 교장이 되신 소감은?

A. 내 머릿속에는 작년부터 교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고 정리를 했었어. 지금도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소감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4년 후쯤에는 학교가 변화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과 교사들과 학생들이 행복해 하고 이 학교에 남아 있고 싶어 하고, 부모들이 이 학교에 막 보내고 싶어 하는 정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는 내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 있지. 그렇게 하려면 우선 학생들과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과 만나서 1:1 상담같이 얘기도 하고 친해져 가고 있는 중이야.

Q. 금산간디와 제천간디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A. 완전히 달라. 간디학교가 한 7개교 정도 있잖아. 하나씩 보면 많이 달라. 학교가 사랑과 자발성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철학이 이뤄지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 같은 점이라고 하면 교사들한테 자유가 굉장히 많이 주어진다든 점, 학생들도 대체적으로 많이 비슷한 것 같아. 다른 점이 있다면 추구하는 가치가 금산이 조금 더 자유로워. 제천은 무슨 철학이라고 해서 쪼이는 게 있잖아. 그거에 비하면 좀 자유롭지. 제천은 자기 스타일로 가치 중심적인 학교로 진화를 많이 했어. 아마 우리 나라에서 제천만큼 자기 스타일을 갖고 있는 학교도 드물거야. 그거에 비해 금산은 그 사이 공백이 많은 것 같아. 제천만큼 안정적이지 못하지.

Q. 금산간디에서 새롭게 배우는 점이나 느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내가 그전까지 08학번 담임이었잖아. 난 그때까지만 해도 준비된 담임인 줄 알았어. 그리고 지금은 약간 더 깊어진 것 같아.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 그럼 관점들이 나의 생각을 좀 더 깊고 넓게 해 준 것 같아. 그런 게 제일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Q. 학교에서 가장 기억 남는 선생님이나 학생은 누군가요?

A. 학생들은 다 기억에 남아. 제천을 생각하면 약간 울컥하고 학생은 어찌면 나의 전부였던 것

같아. 선생님들도 기억에 많이 남긴 하는데 친하고 안 친하고의 두 갈래의 기억이 있어. 그리고 그게 나한테 교훈이었던 것 같아. 어떨 때 어떻게 지냈어야 하는데... 하는 게 남아 있지. 여기서도 선생님들을 대할 때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많이 하고 있지.

Q. 제천간디 학생들에게 하실 말씀!

A. 앞으로의 시대는 창조적이고 통솔적이고 화합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세 가지를 조금씩 배워 나가는 것이 대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 않나 싶어. 어떤 대안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넓게 생각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성장하길 바라고 있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 열린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어.

Q. 샘에게 제천간디란?

A. 내가 교장 출마할 때 이야기했었어. 내 삶의 8할은 간디다. 간디가 나를 만들었다고. 그 8할 중의 한 5할에서 6할은 제천이었다고 생각해. 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줬지. 거기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즐겁게 해 주고 거기는 나의 모든 것이었던 것 같아. 나를 정말 많이 성장시킨 것 같아.

**제천간디에서 삶의 5할을 보내신 태 샘!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만나기는 사람들과 함께 나머지 5할을 채우시길 바랄게요. 잘 지내시길!** 🍷





# 엄마로서, 교사로서 : 임주 샘

이번에는 산청에서 아들 서현이와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임주 샘을 만났습니다!! 제가 갔을 때 서현이는 벌써 한바탕 신나게 놀고는 잠들어 있었는데, 서현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온 것이 내심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씩씩한 서현이만큼이나 여전히 예쁜 웃음을 자랑하고 계시는 임주 샘, 빨리 만나보실까요?

Q. 학교에 계속 계시다가 나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일단 아기가 생겼잖아.

샘이 스물 넷, 스물다섯 즈음부터 거의 10년 동안 온 젊음과 청춘, 열정을 거기다 다 바쳤어. 그래서 사실 정말 오래 있고 싶은 학교였는데, 아기가 생겨서 휴직 상태가 되고, 학교 입장에서 생각하면 샘 때문에 또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샘이 그 전에는 ‘아기를 낳으면 육아 휴직이랑 안식 학기를 같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식 학기를 하다 보니까 웬지 학교도 가난한데 돈 받으면서 있기가 마음이 무겁더라고. 또 남편도 제천에서 집을 지으면 일이 있으니까 좋지만 계속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샘도 친정에 왔다 갔다하고 있어서 정착이 잘 안 되었어. 그리고 내가 떠나겠다는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이곳과 인연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하고 생각하게 됐지. 또 샘의 남편 연고지가 산청에 많아 안식 학기 중간에 좀 결정을 빨리 하고 뭐 계획된 것도 없이 그냥 와 버렸어. 그래서 결정하는 데 마음도 좀 아프고

그했는데, 언제든 인연이 되면 또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 되었지.

Q. 학교를 떠나고 나서 초반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A. 10년 전에 샘이 둔철에 산청중고 있을 때 있었거든. 한 학기 정도 있다가 제천으로 옮긴 거였는데, 그때 뭐 잠시 한 학기 정도 산청에서 살긴 했어도 사실 낯선 곳이거든. 10년 만에 다시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리들이 많은 거야. 여기서도 이제 학교가 아닌 다른 삶에서 육아를 통해 하는 네트워크가 무척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도서관에도 ‘북스타트’라고 그런 아기들을 위한 모임이 있어. 거기서도 샘 또래의 엄마들 만나서 같이 나누고, 같이 아기를 키워 나가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더라고. 한 2년 정도 꼬박 아기랑 너무 행복하게 살았지. 진짜 재밌게 아기랑 둘이 여행도 가고 같이 주변 사람들하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하고 지냈어.

Q. 지금 산청 마을학교에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샘은 정말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리고 왔거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 게다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 여기 오니까 산청 마을학교에서도 알고 있었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샘이 영국에 갔다 왔으니까 발도르프 강의도 해 달라 해서 학교에서 샘들한테 그것도 알려주고, 샘이 제천간디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했잖아. 그래서 그 프로젝트 수업이 이 학교도 하고 있지만 틀이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은 상태라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강의 요청도 해서 강의도 했어. 또 그전에는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답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직은



아기를 키워야 된다.’고 안 된다고 했었지.

그리고 2학기 때 과학 수업을 요청해서 저번 학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정도 가서 과학 강의만 하는데, 이번에도 샘은 또 아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반 상근(3일, 6일 중에 반만 나가는 제도)을 하고 있는 상태야.

Q. 산청 생활이랑 제천 생활에 비슷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비슷한 게 단 하나도 없어, 완전히 달라.

일단은 따뜻해서 좋아, 너무 따뜻해. 따뜻하니까 아기랑 있기가 정말 좋아. 사실 제천에서는 아기랑 있을 때 너무 추우니까 못 나갔거든. 샘한테는 날씨가 비중이 제일 큰 거 같아.

제천 사람들과 역동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제천은 샘한테는 조금 고립된 느낌, 되게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펼쳐져 있어서 그런지 그런 편안한 느낌도 있어. 물론 제천도 좋긴 했는데 너무 추웠어.

지금은 아기랑 할 거리들이 너무 많고, 아기가 내

중심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곳이 육아에 정말 딱 맞춰진 것 같아 좋아.

Q. 제천에 있을 때랑 산청에 있으시면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A. 매일 샘들이랑 모여서 회의하고 학생들 얘기만 하고, 내 삶에 대한 얘기보다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내 삶 자체를 드러내고 삶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해야 되나, 그냥 지금 삶의 이 순간, 이것들을 계속 나누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져서 사실 마음이 편한 건 있어. 머리 아프고 그런 것들보다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누고, 새롭게 알고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이 편해. 그렇다고 간디학교에서 마음이 안 편했다는 건 아니지만. (웃음)

Q. 제천간디학교가 그리울 때가 있으신가요?

A. 너무 그렇지. 그저겐가 갑자기 양 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양 샘께 전화를 했지. “샘 용건은



없어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하니까, 양 쌤이 “예예, 저는 용건 없는 사람 정말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어.

그래서 자주 많이 생각나. 왜냐하면 나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중요한 시점일 수도 있는데 그 20대라는 게 사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30, 40대가 바뀔 수도 있고 결정될 수도 있고 삶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영혼이 성숙해지는 과정까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뭘 하든지 많이 생각나고, 특히 산청학교에 반상근해서 나가잖아. 학교에 가니까 비교를 하는 건 아닌데, 저절로 ‘거기선 이랬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나고 쌤들도 많이 많이 그림지. 사실 10년 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편한 상대가 되어 버렸거든. 싸우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런 편함이 너무 그림지.

Q. 제천간디에서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쌤들이나 있으시면?

A. 너무 많지, 너무 많고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뒤에 쌤이 담임도 하고 많은 학생들을 만나긴 했는데, 가장 처음에 만난 학생들이 생각나 특히 중3. 쌤이 그때 처음 왔을 때 태 쌤이 담임이고, 쌤이 부담임인가 그랬거든? 그때 만난 아이들하고 쌤이 9살밖에 차이 안 났나? 그래서 뭐 거의 언니, 막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그때 처음 시작하고 첫 마음으로 만난 아이들이 사실 많이 기억에 남기도 했지만, 꾸준히 연락도 하더라고 자기네들이.

Q. 아들 서현이는 어떻게 지내요?

A. 나우(서현이 태명)가 올해 4살 됐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아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좀 춤을 과하게 춰.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정말 춤을 과하게 춰. 노래도 많이 하고 매일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 진짜로 정말 심하게. 지금 자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아니면 여기 거실이 무대야.

Q. 제천간디 학생들이나 학교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제천간디학교는 일단 나와 보니까 정말 훌륭한 학교라는 게 느껴져. 그래서 그곳에 있는 특히나 학생들은 더 행복한 아이들이고... 사실 있을 때는 모르지. 졸업하고 나면 알겠지만, 언제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이거든. 근데 그걸 다들 몰라.

그리고 제천은 정말 실천이 잘 되는 학교인 거 같아. 그래서 아이들도 좀 힘들 수도 있었지만, 훌륭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졸업을 꼭 하라고 하고 싶어. 왜냐하면 학교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꼭 남는 게 있을 거거든. 그리고 지금은 쌤이 아는 쌤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사실 쌤이 제천에서 그 20대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뭐 지금도 많이 성숙했다고 할 순 없지만 쌤은 거기서 영혼이 되게 살찐 거 같아. 나를 거의 키우다시피 한, 처음에 계셨던 손 쌤, 양 쌤, 태 쌤, 현숙 쌤, 노경환 쌤도 계셨고(필 쌤은 늘 쌤을 구박했지)... 다른 쌤들은 쌤이 어리니까 정말 키우다시피 해 주셨어. 그래서 잘 자랐지. 그런 쌤들 덕분에 좀 성숙해진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고맙지. 당시에는 내가 철이 없었는데, 그때 무척 잘해 주신 것 같아. 그런 쌤들하고 지금 함께 있는

쌤들도 아마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텐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행복한 삶이었다고 느낄 거야.

Q. 쌤에게 제천간디란?

A. 음... 내 영혼이 살찐 곳?

정말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임주 쌤은 최소은 기자가 2학년이던 시절, 말도 잘 못하던 시절을 봐 왔었어요.

서현이와 나들이를 갔다 와서 피곤하실 텐데도 저희의 인터뷰를 받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서현이와 재밌고 신나는 일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 12년을 간디에서 보낸 그대: 양쌤

**1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과연 짧은 시간일까요?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간디학교에서 지내고 살아오신 양 쌤은 작년에 12년이라는 시간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새로운 1년이라는 첫 줄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현재 양 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Q. 학교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사실은 2년 전부터 생각을 했어. 교장을 12년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깐 내가 이렇게 교장으로

있으면 간디학교가 발전을 못 할 것 같은 거야. 체천에 와서 간디학교를 만들고, 학교가 안정될 때까지 밀거름되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고 생각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교사들이 새롭게 학교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럴 때가 된 것 같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학교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기숙사 올라가는 길) 살고 있잖아. 게다가 나도 이제 나이를 들었어. 쉰 세대야. 쉰 세대(웃음). 쉰 세대가 되니깐 너희들도 소중하고 좋지만, 그 다음 졸업생 청년들에게 관심이 가더라고. 청년들을 위해 마을에다 시스템을 만들려면 준비가 필요하기도 하고 일거리와 재미도 있어야 좋잖아. 근데 시골은 재미가 없어(웃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 내 마음속으로는 학교를 그만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Q. 그렇다면 학교를 나온 직후의 느낌이 어떠셨나요?

A.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학교를 안 갔어. 엄청 기분이 좋더라?(웃음) 아침에 너희가 내려가는 소리 다 들리는데 ‘난 학교 안 가는데~’ 이런 생각하고(웃음). 학교를 그만뒀으니 백수인데 이상하게 백수가 매일 과로사해. 어디서 강의 좀 해 달라고 하면 예전엔 학교 때문에 못 간다고 했었는데 이젠 핑계를 못 대. 오히려 좀 피곤했지. 쉬려고 했는데 못 쉬기도 했고.

Q.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A. 지금은 교육 센터. 누리어울림 센터를 간디 교육문화센터라고 이름을 바꿨거든. 그것을 이제 마을 주민이나 일반 아이들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평생 교육프로그램 같은 걸 계획하고 있어. 또

대안 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만드는 대안 대학이 있는데, 그런 대안 대학을 만드는 것도 돕고 있어.

Q. 지금 새롭게 일을 하시는 그곳에서 배우는 점이나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A. 학교 떠나가면서 나도 학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너희들한테 미안한 건 나도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너희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해 본 적이 없거든. 이제는 내가 공부를 삶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 그게 배움인 것 같아. 다시 학생이 된 기분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전에 느낀 공부하고는 다른 측면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청년들이 삶에서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지.

Q. 학교가 그리울 때 혹은 학교 일상이 그리워 질 때가 있으시다면 언제인가요?

A. 너네가 재잘거릴 때. 뭐 하나 싶기도 하고. 12시쯤 지나면 너희가 '점심 메뉴가 뭘까?', 하면서 줄설 거야, 쉬는 시간하고 2시 지나면 꼭 졸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걱정되는 게 있다면 아직 땅이 덜 풀렸는데, 남자애들이 축구하다가 발을 다칠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점들이지.

Q. 학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사람이 있다면?

A. 사람은 많지. 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종명이 같은 애. 종명이라고, 약간 자폐가 있었어. 난 솔직히 학교를 졸업 못할 줄 알았어. 굉장히 힘들



것 같았거든. 근데 졸업할 때까지 조금 조금씩 변화되어 가더라. 학교이고 생활하는 곳에서 6년이라는 게 굉장히 길잖아. 그 사람의 1학년 때를 생각하고 졸업할 때를 보면 그 사람이 많이 변한 것 같은 거야. 그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지.

Q. 지금 제천간디학교 애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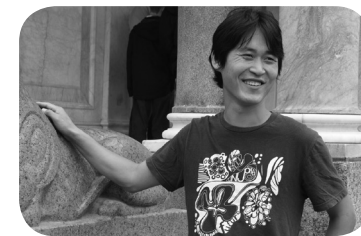
A. 재밌게 놀고, 공부 좀 해 봤으면 좋겠어. 공부도 참 재밌는데 내가 아쉬워서. 너희들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깐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 무언가에 깊이 빠져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옛날, 졸업생 중 한 명은 S의류회사의 드레스 디자이너야. 그 친구가 남자애인데 정말 여성스러워. 여자 친구 옷 입혀 가지고 패션 쇼하고. 그 친구가 공부를 어떻게 하나면, 어느 날 영어를 하고 있더라고 디자인 책도 읽고 좀 다시 보니까 불어 책을 읽고 있어. 패션은 불어래. 좀 있다가는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 디자인 설계를 잘못하면 짹짹이래. 이렇게 공부하는 걸 보면 좀 있다가는 일본에 가려고 일어를 공부해. 근데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니깐 빨리 습득이 되는 거야. 어떤 애는 연애하기 위해서 일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다 했어. 독일 가서 독일 남자 만나려고 하고, 여러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공부했었지. 너희한테 '하나에 빠져서 공부를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싶어.

Q. 샘에게 제천간디란?

A. 초콜릿 같은 거다. 초콜릿은 사실 먹어 보면 생각보단 맛있지 않아. 하지만 여러 가지 맛이 섞여서 초콜릿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초콜릿이야. 사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세월을 보낸 곳이 간디학교지. 30대, 40대, 50대 초반을 다 보내면서 살았단 말이야. 어떻게 내가 간디를 빼고 말할 수 있겠어. 이건 내 삶이야. 그래서 초콜릿 같다는 거지. 어떤 때 초콜릿은 너무 달면 못 먹어. 하지만 초콜릿이라고 생각 자체만 해도 너무 좋아. 그래서 학교는 초콜릿 같은 존재야.

**초콜릿 같은 간디학교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신 양 샘! 앞으로 더욱 더 멋진 시간들을 보내시며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밖의 또 다른 세상에서 새롭게 알아가시는 점이 많으시길! ☺**



제천간디에 소중한 추억을 남긴 얼굴들: 양희창 교장 샘(맨 왼쪽), 주승룡 사감 샘(가운데 위), 서은혜 영어 담당 샘(가운데 아래), 장희숙 국어 담당 샘, 그리고 제천간디를 다녀가신 많은 선생님들(위)



# ‘반쪽 하늘’을 기억하시나요?

김은수 기자(2학년)

‘반쪽 하늘’은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다가 이번 학기에 새롭게 개설된 수업입니다. 이름을 보고 가우뚱하지 않으셨나요?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여성학’이라는 학문을 배웁니다. ‘학문’ 하면 어렵다는 생각부터 들지만, 여성학은 우리의 생활 깊숙이 녹아 있는 편견들을 외장창 깨 버리는 흥미로운 학문입니다. ‘반쪽 하늘’에서 여성학을 가르치시는 수자 쌤을 만나보았습니다.

Q. ‘반쪽 하늘’ 수업을 개설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반쪽 하늘’ 수업은 고등 대상의 여성학 인문 과정이야, 예전에는 4학년이 2학기 때 필리핀을 갔었잖아. 그래서 1학기에는 필리핀 문제로 바쁘고 2학기에는 필리핀을 가서 (학교에) 4학년이 없으니까 4, 5학년이 같이 들을 수 있는 이번 기회에 개설한 거야.

Q. 고등부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여성학이라는 거 자체가 사회의 구조를 보는 시각에서 파생 된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을 갖기에 중등 친구들은 아직은 힘들겠다 싶고, 고등 친구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고등 대상의 수업으로 개설이 된 거지.

Q. 생소한 분야인데,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음... 고등부 정도가 되면 자기의 배움이나 학습을 스스로 만들어 갈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 중등과정 같은 경우는 모르는 거 알려주고 선생님이 같이해 주면서 학생들이 배우고 학습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등과정 같은 경우는 딱히 여성학에만 국한되지 않은, 스스로 학습을 조직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성학 수업도 수강생들이 다 똑같은 책을 읽고 몇 명이 요약 발제를 하고, 서로 책을 읽으면서 문제 의식을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 선생님이 짚박하게 준비해 와 가지고 이걸 이렇고 저런 저렇고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의 수업은 아니야.



Q. 수업 이름이 왜 ‘반쪽 하늘’인가요?

A. 이 세상은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이라고 통칭되는 남성과 여성이 하나의, 전체의 하늘을 봐야 되는데 여성의 경우 ‘전체 하늘을 나의 하늘로 안고 있지 못하다.’ ‘반쪽조차도 제대로 바라보고 점용하고 있지 못하다.’ 라는 의미에서 ‘반쪽 하늘’이라고 이름을 정했어. 그러니까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하늘의 절반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니까, 나머지 반쪽의 남성 또한 당연하게 전체 하늘을 볼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을 빗대는 이름이지.

Q. 수강생들의 태도나 생각은 어떤가요?

A. 아직 수업을 두 번밖에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많은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여성학이란 뭐지?’ 하고. 내가 남자든 여자든 그걸

떠나서 궁금한 거야. 남학생, 여학생 반반이거든. 남학생들도 단순한 호기심에서 수업을 들었다가 수업을 하다 보면 남학생, 여학생 같릴 것 없이 둘 다 되게 어려워하긴 해. 여성학 자체가 사회의 구조를 바라보고 내가 부당함을 느껴야 이게 또 다른 실천 학문으로 등장을 하는데, 아직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여성 차별이라든지, 성 역할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체감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고민을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기는 하지.

Q.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A. 그냥 익숙하게, 편하게, 생각 없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그러한 사실이나 인식에 대해 다시 한 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태도가 생기면



\*여성학 수업에서는 수업 마무리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반대인 '이갈리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이갈리아의 딸들>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합니다. 수업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 예전 여성학 수업을 들은 졸업생들의 글을 실었습니다.

## <이갈리아의 딸들>을 읽고

김현지 (06학번 졸업생)

좋겠어. 근데 그건 단순히 남자, 여자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는 않거든. 예를 들어, 옛날에는 지하철 카드 넣는 곳이 다 오른쪽에 있었어. 그냥 띠- 하고 간단 말이야. 나는 아~무 불편함도 없었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생각해 보면 왼손잡이인 사람은 불편한 거야. 하지만 어찌 되었든 수적으로는 오른손잡이가 많은 거니까. 여성학이나 남녀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했던 나조차도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차별에 대해서는 둔감했던 거지.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너무 당연하고 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쯤 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불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불편감을 느끼진 않을까? 인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생각을 하게 되는 태도를 여성학 수업에서 길렀으면 좋겠어. 계단 같은 것도 그렇잖아. 가파른 길을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든 게 계단이잖아. 근데 휠체어 탄 사람에게는 거의 접근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벽이거든.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은, 그런 친구들한테는 아예 길을 돌아서 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 거야.

Q. 그럼, 우리 학교의 4.19마라톤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 친구들이 입학하면 힘들겠네요.

A. 그렇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지.

이번 인터뷰를 통해 '반쪽 하늘'이란 수업에 대해 알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 '반쪽 하늘' 처럼 다양한 수업이 많이 개설되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인터뷰에 응해 주신 수자 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반쪽 말고 하나의 하늘을 보는 건 어떨까요? 🌈

이 책에 나오는 새로운 나라 '이갈리아'에서는 남녀의 역할이 뒤바뀐다. 우리 사회와는 달리 여성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다. 여성을 뜻하는 움과 남성을 뜻하는 맨움이 있다. 움(wom)은 인간 전체를 뜻하기도 한다. man과 같은 맥락의 의미이다. 움은 강하고 기가 센 모습으로 묘사되는 반면, 맨움은 약하고 예쁜 모습으로 묘사된다. 난 정말 lady&gentleman이 이런 의미로 바뀔지 예상치 못했다. 여기서는 로디즈 앤 젠틀웜이라고 해서 로디즈가 맨움이다.

움은 대부분의 높은 직업을 차지하고 있지만 맨움은 자신만의 직업을 갖는 것마저 뒤로 밀려난다. 맨움 페트로니우스가 뱃사공이 되고 싶다고 하자 무시당한다. 이 세계의 직업도 성에 의해 차별 당하는 것에서 현실과 비슷한 것 같다. 요즘은 덜해졌지만 아직까지도 남자, 여자는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해~ 같은 인식이 있다.

맨움은 약하므로 움에게 부성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부성보호를 받으면 그 움의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해야만 한다. 이갈리아의 세계는 움 중심적 사회이다. 재미있는 점은 맨움도 가사노동에 아무런 보수가 없다는 것에 불평한다는 것이다. 사실 가사노동에 보수가 없다는 것에 그리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있다면 집안일은 가정을 꾸려나가기에 필수적인 것이니까 정도. 하지만 수업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남자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밖에서 일을 한다면 여성이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데 보수가 없다면 그걸 위해 희생한 여성의 시간과 정신적 부담은 누가 해소해주나 하는 의문이 잠깐 들었다. 나라에서는 아이가 많지 않아도 여성이 가사노동을 위한 지원금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성관계에서는 움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움이 원할 때에 맨움은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상황으로 묘사된다. 심지어 길에서 강간당하는 것도 맨움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제대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책 속의 모습이다. 이것은



현실을 비꼬고 있는 것만 같다. 이 책은 현실을 뒤집어 놓은 것과 다름없다. 뒤집어 놓음으로서 '이젠 알겠지, 우리의 고통을!'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뒤바뀐다고 해도 서로가 어느 한 쪽을 자신보다 약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똑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책에서 그냥 남녀의 역할을 뒤바꿔놓기만 한 내용에 약간 아쉬웠다. 물론 서로가 입장 바뀌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결국 똑같은 차별에 마음이 씁쓸했다. 이갈리아에서 맨몸이 입는 폐호는 여성들의 브래지어와 같다고 보면 될까? 폐호도 결국 사회에서 입도록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성을 부끄럽고 꺼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도 사회의 영향이 클 것이다. 우리나라보다는 서양 쪽이 성에 대해서 훨씬 자유롭다. 우리나라는 성교육부터가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진행한다. 그렇게 성을 묻어가는 것부터 우리는 무의식 속에 성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인식을 교육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성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유로운 느낌을 갖는 것이 좋겠다. ♡

# 게르드 브란튼 베르그의 〈이갈리아의 딸들〉

이범진(05학번 졸업생)

1975년도 작품이다.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남성과 여성이 사회, 문화, 문명적 지위가 뒤바뀐 시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세계는 가부장제도가 아닌 모건제도이며 여자가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뭔가 여성학 쪽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하기 어렵기도 했고, 오히려 그런 지식이 없어서 더 이 세계를 새롭게 바라 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맨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고 여자가 된 나인 것처럼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맨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했다. '아, 여자들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론 자신들을 억압하는 것들에서 벗어날려는 주인공을 봤을 땐 '남자란 저런 상황에서도 헤쳐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기도 했다. 내 생각 속에 이미 남성 우월주의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도 이미 여성을 약한 사람이 아닌 '무엇'인가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어디에서 이런 생각을 가져온 것일까? Man이란 단어에서? 남성은 국가적인 일을 하며 여성은 가정 일을 하는 것이, 남성은 큰일을 한다는 느낌을 주고 여성은 가정일이나 하는 작은 일을 한다는 사회적 이미지가 내게도 있었던 것일까?(난 실제로 가정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어쨌든 여성이 억압당하는 이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지?) 어렸을 때 '여성은 약하다.'라고 교육 받아와서 여성을 동정심으로 바라본 것은 아닐까? 내가 동정으로 도와주고 여성을 약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여성을 약체로, 남성이 우월한 자로 생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사람'이란 공통된 것으로 평등하게 가리키게 하기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배적인, 강제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평한 사람이 되고, 자유를 주는 것,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자유를 가지는 것.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너무 좁은 뜻이지만 '그래 나와 함께 하는 사람(부인)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리고 내 지배권을 줘버려야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이해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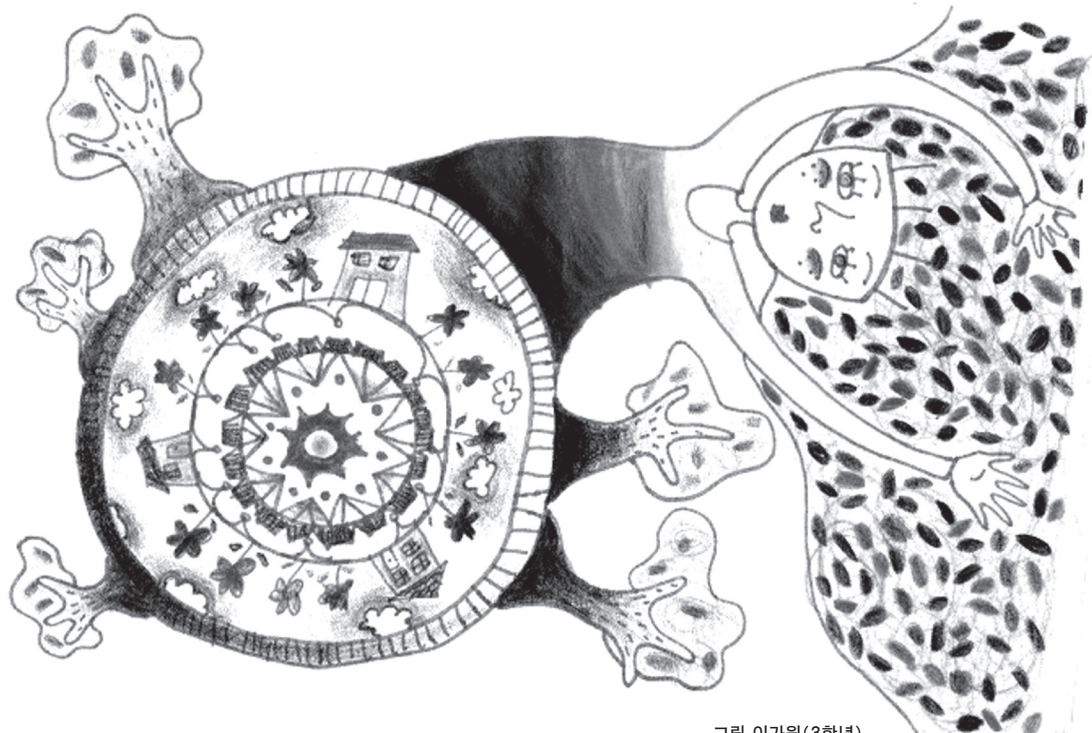


그림 이가원(3학년)

# 나의 수호천사, 멘토!!

최형규 기자 (3학년)

매년 파릇파릇한 신입생들이 들어옵니다. 신입생들은 학교가 처음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것들도 많고, 낯선 학교에서 13년간 같이 살아오던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느라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입생들을 위해 ‘멘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멘토는 경험이 많은 학생들 위주로 짜여진 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시발점은 알 수 없으나 오래 전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이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으로는 ‘신입생들이 어색한 학교, 선배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다’ 등이 있고 단점으로는 ‘멘토들이 책임감이 없다, 활성화가 잘 안 된다.’ 등이 있습니다.

멘토 제도는 말 그대로 멘토들이 신입생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학년들에게 멘토가 먼저 말을 걸고, 서로 친해지면서 학교에 대해 설명해 주거나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주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멘토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요즘 멘토 제도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멘토들은 멘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1학년 설문 조사 결과 21명 중 11명이 ‘자신의 멘토가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인사를 안 한다, 안 친하다, 인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 말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멘토를 정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회 부서 중 오지랴이라는 부서가 멘토 제도를 관리하며 멘토를 정하는데, 오지랴이 멘토를 정할 때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너 멘토 할래?’라고 물어 보고,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그 사람이 멘토가 됩니다. 멘토가 해야 할 임무와 역할이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고 싶다고 하면 멘토가 되는, 너무 급하게 멘토를 뽑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적어도 1학기 전에 멘토의 역할과 의무를 공지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멘토 제도에는 이렇게 단점들만 있지 않습니다. 1학년들에게 장미 꽃다발도 주고 편지도 써 주는 등, 멘토 제도의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멘토들도 있지요.

멘토를 해 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입생 개인마다 자신의 멘토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다를 테고, 그 역할을 멘토들이 해 주지 않으면 신입생들은 멘토들이 잘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신입생들이 생각하는 멘토의 이미지는 모두 같지 않을까요? 자신의 수호천사라고, 자신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입생들은 뿌듯해 하지 않을까요? 학교에 잘 적응해 가는 신입생들의 힘찬 앞날을 기대해 봅니다!! ☺

**· 멘토란?**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의 의미로 쓰이는 말.

**· 멘토의 유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집안 일과 자신의 아들인 텔레마코스의 교육을 자신의 친구인 멘토에게 맡긴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10년 동안 멘토는 텔레마코스의 친구, 선생, 상담자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 그를 잘 돌보아 주었다. 이후 멘토라는 이름은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출처 : Naver)

멘토	1학년	1학년이 멘토에게 바라는 점
김지형	강자현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세요
한별	진주열	없습니다
장우정	김태은	지금처럼만 대해 주세요
노영빈	에나연	말을 많이 해 주세요
강도운	전선	말을 많이 해 주세요
권산	차민경	인사해 주세요
조하한	유지현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유준상	위하늘	없습니다
오지영	노규리	시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진	박재성	딱히 없다
손재은	김나연	친하게 지내요
서하린	전하성	잘해 주세요
김한솔	이한솔	없음
김채현	김지민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 주세요
안다연	김창수	없다
장기중	김규동	좀 더 잘해 주세요
권효연	신비아	없음
최민현	박성현	없음
신지은	정영학	잘해 주세요
박소열	남궁연	없다
김소아	이창기	관심 가져 주세요





# 동아리, 더 즐겁고 싶지 않은가?

유현영 (5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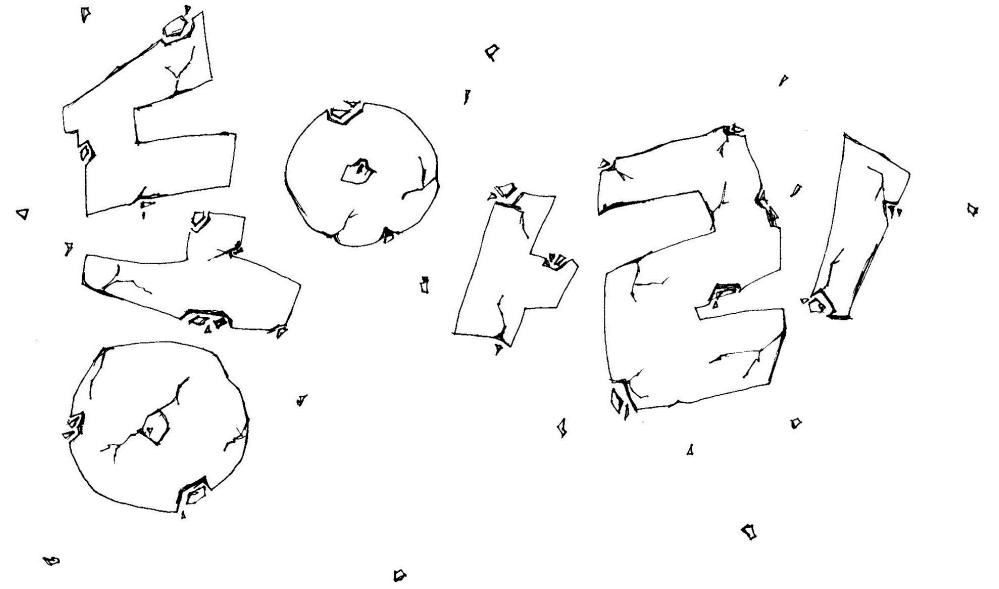
‘간디학교’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동아리이다. 이전부터 간디학교에는 ‘솔피바람’이나 ‘간락연’(간디록스타연합)부터 시작해 변화해 온 ‘지락’처럼 나름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거나, 또는 매년 새롭게 생기는 동아리들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간디학교 동아리들의 구성을 잠시 살펴보자. 수익을 내는 생산 동아리로는 ‘빵아저씨’, ‘너쨌나쨌’, ‘풀이라면’, ‘카페인’, ‘오타쿠’, ‘영화감상부’ 정도가 있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썩끈다리’, ‘생리통’, ‘2M’, ‘경당’이 우리 학교 운동 동아리로 꼽히고 있으며, 그 외에 각종 행사 때 화려한 공연을 책임지고 있는 ‘솔피바람’, ‘미지정’, ‘기지개’, ‘여우하품’, ‘다락’, ‘지락’, ‘필오케스트라’가 있다. 그 외에는 사진 동아리 ‘늘품’, 봉사 동아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어깨동무’와 갖가지 영상을 만드는 ‘빨간비디오’까지 총 20개의 동아리가 현존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 안에서 전교생 중 가입하지 않은 학생이 ‘극소수’일 정도로 동아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학생들의 최대의 관심거리였던 동아리 문화가 조금씩 뒤처지고 큰 발전을 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된다. 실제로 작년 생산 동아리들의 활동 실적을 보았을 때, 매주 해야 하는 간식 납품을 동아리 사정으로 거르는 경우도 종종 생겼으며, 축제 때 학교에 오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 외에는 다른 활동이 없었다. 여자 운동 동아리인 ‘생리통’은 1학기에 있는 ‘삼간디 축구대회’ 시즌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모여 활발히 활동한 사례가 없고, 여러 다른 동아리들도 축제 기간에만 맞춰 활동하다가도 학기 중에는 다시 종적을 감추는 등, 매년 큰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그저 기존에 하던 것들에만 의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 주고 있다.

현재 교사까지 합해 120여 명 정도가 학교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그중에 약 100명의 학생들이



한 개 이상의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도 왜 동아리 문화의 발전이 부진하고 매년 똑같은 활동들만 반복되는 것일까? 교육 과정에는 중등·고등을 통합해 6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8학기 이상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혹시 동아리 이수 학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동아리에 억지로 가입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3학년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 본 결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동아리 이수 학점에 대한 압박감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교의 중심이 되고 있는 3학년부터 비교적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온 고등부 학생들은 스스로 원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1, 2학년 학생들도 동아리 활동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44명 중 26명의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라고 답해 주었을 정도로, 관심도나 적극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동아리 안에서 새롭게 발전시키고 싶은 사항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딱히 생각해 본 적 없다.’, ‘귀찮다.’ 등의 의견으로, 앞서서도 이야기 했듯이 기존에 하던 것에 의존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 주었다.

우리 학교는 3학년이 되면 각자 스스로 주제를 정해 논문을 써서 이수를 받아야 고등과정에 진학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등부로 진학하게 되면 4학년에는 필리핀 평화 여행, 그리고 5학년에는 진로 프로젝트와 인턴십 준비로 자연스럽게 저학년 때보다 학교의 교육 과정에 더 집중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동아리에 ‘명예 회원’ 제도가 존재해, 3년 동안 활동한 고등부는 자연스럽게 활동은 하지 않고 이름만 올라 있는 채 온전히 중등부가 주축이 되어 동아리를 운영했다. 하지만, 최근에 명예 회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동아리 연합회에서는 고등부의 동아리 참여도를 좀 더 높이기를 요구했다. 이 명예 회원 제도의 폐지는 전교생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실제로 고등부가 동아리 문화에 많이 개입하게 되었지만

동아리 발전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명예 회원 제도만 폐지된 것이지 고등부의 동아리 문화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고등부가 예전보다도 더 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동아리 문화에 많이 관심을 기울일 수 없게 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아리의 일원으로서 그 중심을 중등부 학생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리도 수업이나 움직이는 학교, 인턴십처럼 교육 과정 중 하나로 생각하고 고등부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스무 개나 되는 동아리들이 한 학기 동안 함께 나누 가져야 할 동아리 지원금은 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매 학기 말이 되면 학생들은 마무리 되는 수업, 작업장, 동아리 등에서 회식을 가기 때문에 들뜨곤 하는데, 비생산 동아리나 그중에서도 특히 지도 교사의 지원조차 많이 받지 않는 동아리들은 소외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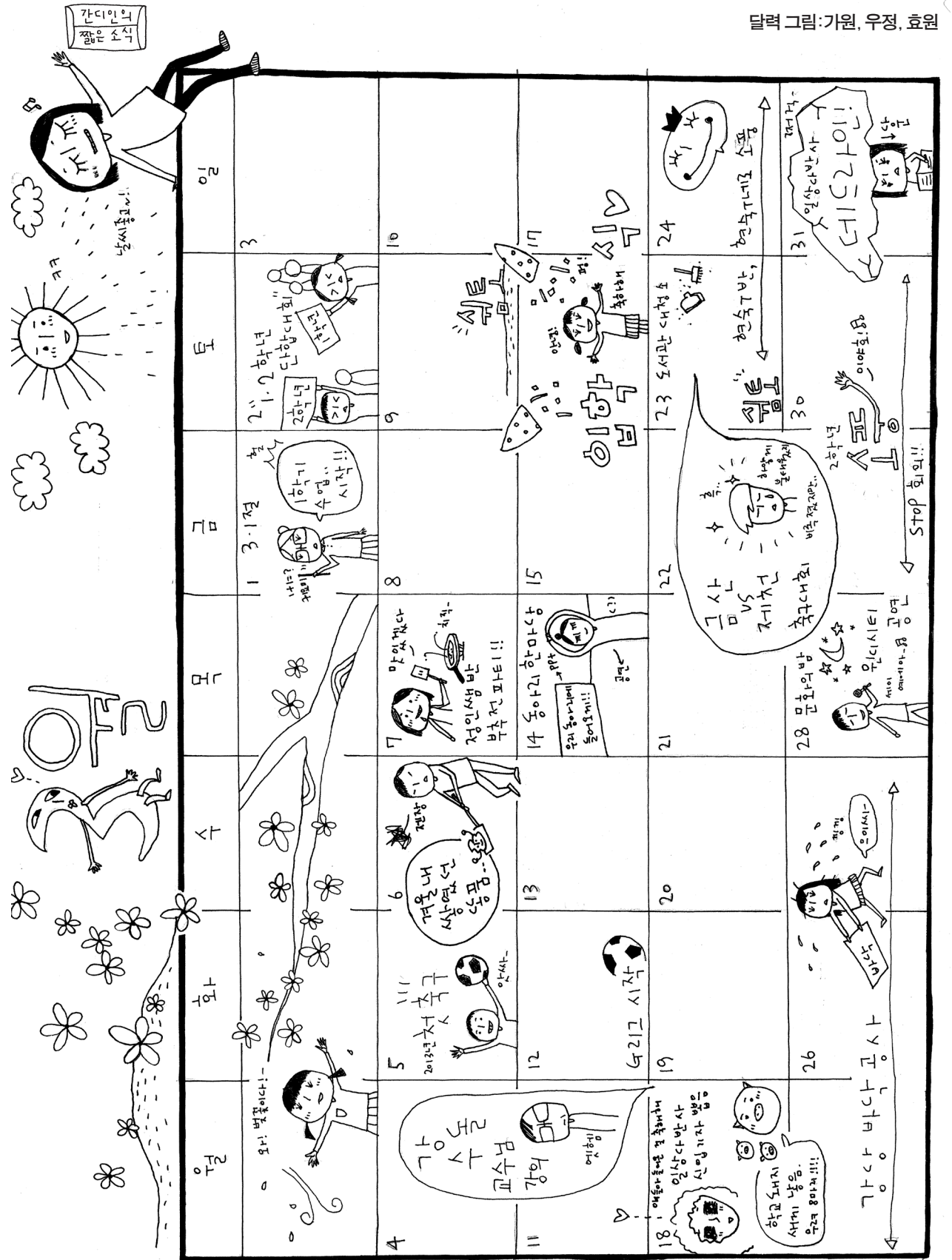
또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해 본 결과 다수가 '지도 교사의 역할을 잘 모르겠다.', '차량 지원이나 돈과 관련, 특별히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아니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을 밝혔고, 실제로도 지도 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한정적인 선에서 멈추어 있다.

앞서 말했듯이, 동아리도 교육 과정 중 하나로 4년 이상 활동을 해야 그 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동아리의 조금 더 활발하고 안정된 활동과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측에서도 지도 교사와 더불어 지원금에 관련된 문제들에도 많이 신경 써 주어, 학생들이 안심하고 동아리 안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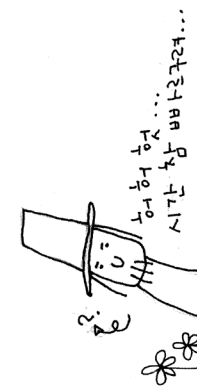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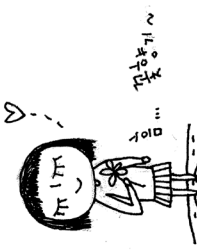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점은 '으뜸동아리상'의 선발 기준을 새롭게 바꿔 보는 것이다. 선발 기준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저 일지만 잘 쓰면 된다는지 정기회의만 잘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동아리 사이에서 돌고 있다. 이러한 점 또한 학생들의 적극성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동아리 연합회에서는 '으뜸동아리상'의 선발 기준을 새로 세우고, 더불어 다른 여러 가지 추가적인 보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지금 현재 활동이 뒤쳐지고 있는 많은 동아리들 사이에서 유난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다. '어깨동무'는 봉사 동아리로서, 한 달에 두 번씩 마을회관에서 시행하는 침·뜸 봉사에도 항상 참여하며, 가까운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매주 직접 만든 반찬거리를 가지고 방문해 말동무가 되어 드리기도 하는 등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점점 활동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어쩌면 '어깨동무'가 작년에 만들어져 아직 활기를 띠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동아리 문화는 결국 우리 학교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의 노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또 다른 자기계발의 기회이다. 때문에 우리 학교의 동아리 문화를 앞으로도 이어가고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선 비교적 학교에서 오래 생활해 온 선배들과 교사들이 나서서 동아리 문화를 위해 조금 더 신경 써 주어야 할 것이다. 🍀





# 5월 5일



일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오븐 하우스**  
10:00

5 **비포크락**  
서야시시  
10:00

6 수업중 지점!  
10:00  
다이스의 꽃결을  
하버너 아니도요!

7 **이**  
가정관습 시작!

8 **우**  
9 **오븐 하우스**  
10:00

10 **우**  
11 **우**  
12 **우**  
13 **우**  
14 **우**  
15 **우**  
16 **우**  
17 **우**  
18 **우**  
19 **우**  
20 **우**

13 **우**  
14 **우**  
15 **우**  
16 **우**  
17 **우**  
18 **우**  
19 **우**  
20 **우**

14 **우**  
15 **우**  
16 **우**  
17 **우**  
18 **우**  
19 **우**  
20 **우**

21 **4.19 마라톤**  
3하년 소풍 "GO"  
22 **우**  
23 **우**  
24 **우**  
25 **우**  
26 **우**  
27 **우**  
28 **우**  
29 **우**  
30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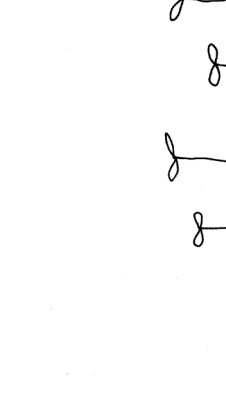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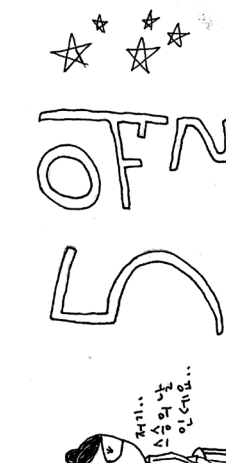
21 **우**  
22 **우**  
23 **우**  
24 **우**  
25 **우**  
26 **우**  
27 **우**  
28 **우**  
29 **우**  
30 **우**

30 **우**  
31 **우**

31 **우**

30 **우**  
31 **우**

31 **우**



일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우**  
7 **우**  
8 **우**  
9 **우**  
10 **우**  
11 **우**  
12 **우**  
13 **우**  
14 **우**  
15 **우**  
16 **우**  
17 **우**  
18 **우**  
19 **우**  
20 **우**  
21 **우**  
22 **우**  
23 **우**  
24 **우**  
25 **우**  
26 **우**  
27 **우**  
28 **우**  
29 **우**  
30 **우**  
31 **우**

1 **우**  
2 **우**  
3 **우**  
4 **우**  
5 **우**  
6 **우**  
7 **우**  
8 **우**  
9 **우**  
10 **우**  
11 **우**  
12 **우**  
13 **우**  
14 **우**  
15 **우**  
16 **우**  
17 **우**  
18 **우**  
19 **우**  
20 **우**  
21 **우**  
22 **우**  
23 **우**  
24 **우**  
25 **우**  
26 **우**  
27 **우**  
28 **우**  
29 **우**  
30 **우**  
31 **우**

3 **우**  
4 **우**  
5 **우**  
6 **우**  
7 **우**  
8 **우**  
9 **우**  
10 **우**  
11 **우**  
12 **우**  
13 **우**  
14 **우**  
15 **우**  
16 **우**  
17 **우**  
18 **우**  
19 **우**  
20 **우**  
21 **우**  
22 **우**  
23 **우**  
24 **우**  
25 **우**  
26 **우**  
27 **우**  
28 **우**  
29 **우**  
30 **우**  
31 **우**

4 **우**  
5 **우**  
6 **우**  
7 **우**  
8 **우**  
9 **우**  
10 **우**  
11 **우**  
12 **우**  
13 **우**  
14 **우**  
15 **우**  
16 **우**  
17 **우**  
18 **우**  
19 **우**  
20 **우**  
21 **우**  
22 **우**  
23 **우**  
24 **우**  
25 **우**  
26 **우**  
27 **우**  
28 **우**  
29 **우**  
30 **우**  
31 **우**

11 **우**  
12 **우**  
13 **우**  
14 **우**  
15 **우**  
16 **우**  
17 **우**  
18 **우**  
19 **우**  
20 **우**  
21 **우**  
22 **우**  
23 **우**  
24 **우**  
25 **우**  
26 **우**  
27 **우**  
28 **우**  
29 **우**  
30 **우**  
31 **우**

12 **우**  
13 **우**  
14 **우**  
15 **우**  
16 **우**  
17 **우**  
18 **우**  
19 **우**  
20 **우**  
21 **우**  
22 **우**  
23 **우**  
24 **우**  
25 **우**  
26 **우**  
27 **우**  
28 **우**  
29 **우**  
30 **우**  
31 **우**

13 **우**  
14 **우**  
15 **우**  
16 **우**  
17 **우**  
18 **우**  
19 **우**  
20 **우**  
21 **우**  
22 **우**  
23 **우**  
24 **우**  
25 **우**  
26 **우**  
27 **우**  
28 **우**  
29 **우**  
30 **우**  
31 **우**

14 **우**  
15 **우**  
16 **우**  
17 **우**  
18 **우**  
19 **우**  
20 **우**  
21 **우**  
22 **우**  
23 **우**  
24 **우**  
25 **우**  
26 **우**  
27 **우**  
28 **우**  
29 **우**  
30 **우**  
31 **우**

20 **우**  
21 **우**  
22 **우**  
23 **우**  
24 **우**  
25 **우**  
26 **우**  
27 **우**  
28 **우**  
29 **우**  
30 **우**  
31 **우**

26 **우**  
27 **우**  
28 **우**  
29 **우**  
30 **우**  
31 **우**

27 **우**  
28 **우**  
29 **우**  
30 **우**  
31 **우**

31 **우**

31 **우**



### 3.14 동아리 한마당

1학년들의 기대주!! 동아리들의 축제가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여러 동아리들이 나와 각각 하는 일이나 성격을 설명하고 부원 소개를 하고, 공연도 하면서 모두 다 같이 웃고 떠들며 즐겁게 축제를 즐겼습니다.

파릇파릇한 1학년들이 들어오면 칙칙했던 동아리에 활기가 넘쳐날 거예요!!! 1학년들! 잘해 봅시다!!



### 3/16 입학식

올해도 어김없이 2013년도 새내기들이 입학했습니다!! 입교한 후 3주 동안 열심히 학교 적응을 마친 신입생들은 이제 정식 간디인이 되었습니다. :- ) 선배들의 축하 공연도 보고 자축 공연도 하며 즐겁게 입학식을 마쳤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1학년들이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3/28 문화의 밤 인디밴드 '윈디 시티' 공연**

2013년 새 학기의 첫 문화의 밤으로, 인디밴드 '윈디 시티'가 왔습니다! 오후 일찍이 오시는 바람에 그냥 동네 어른들인 줄 알았다는 학생들의 말처럼 정말 복잡도 그냥 동네 분 같았습니다. 그러나! 공연이 시작되니, 역시 알아주는 밴드이니만큼 정말 멋있었습니다!! 산티학교에서도 놀러 오고, 동네 분들도 오셔서 다 함께 즐거운 첫 문화의 밤을 즐겼습니다.



**4/5 비폭력 서약식**

올해의 비폭력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니만큼 일주일 전부터 비폭력 주간으로 지정해, 전교생 모두와 샘들까지 다 존댓말을 쓰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비폭력 서약식 당일, 다들 진지한 마음으로 비폭력을 다짐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고, 준비한 공연들도 다들 재밌게 잘 끝마쳤습니다. 올해 해 동안 모두 잘 지내 보아요!! :-D



**4/16 문화의 밤 '그린 디자이너 윤호섭 교수님'**

그린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윤호섭 교수님이 저희 학교를 찾아 주셨습니다! 그린 디자인은 환경을 생각하여 여러 가지 디자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이번 문화의 밤에 오셔서 강의도 해 주시고 학생들의 티셔츠에 여러 의미 있는 그림들을 그려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재미있는 강의와 티셔츠의 예쁜 그림들로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4/19 4. 19마라톤**

이맘때쯤이면 학교는 핑크빛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바로 학교 사람들의 로망! 이성이랑 손잡고 뛰는 4.19마라톤인데요. 한두 시간 동안 둘이서 손잡고 오붓하게 학교에서 덕산까지 건너 뛰는 날이에요. 4. 19는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을 몰아 내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많은 희생이 뒤따른 슬픈 날이지만,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신나고 즐겁게 뛰는 날이었습니다.



**4/22 캔들 나이트**

이번 '지구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 캔들 나이트를 했습니다. 캔들 나이트는 묵학(저녁 7시~9시) 시간 동안 기숙사의 모든 전기를 끄거나 사용하지 않고, 촛불을 켜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캔들 나이트를 해 보면서 전기의 소중함도 느끼고, 촛불의 아늑하면서도 진지한 분위기 덕에 남다른 묵학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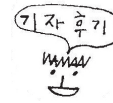






4/23 학생회 주체 '규칙 문화의 밤'

이번 학기에 들어서 '학교 규칙 되돌아보기'를 여러 방법으로 해 보았는데, 규칙에 대한 설명을 대자보로 게시하기도 하고 각 학년끼리 규칙에 대해 토론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규칙을 되돌아보는 마지막 매듭으로 '학교 규칙 되돌아보기의 밤'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준비한 이번 문화의 밤은 교장 샘의 학칙 설명부터 시작해서 규칙에 대한 연극과 OX 퀴즈 등으로 흥미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제 모두 규칙에 대해 잘 알았겠죠?! 🍷



김민석 (2학년)

처음으로 인터뷰 글 말고 다른 글을 써 보네요. 별 누나 고생 많았구요. 앞으로도 힘내 봅시다. 고등 교육관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여름 호에서 봐요.



안효원 (2학년)

겨울 호가 너무 늦어져서 봄 호가 잘 나올지 걱정했는데, 어김없이 잘 나와서 기분 완전 좋아요. ㅎㅎ 모두 모두 수고했고, 솔직히 저는 한 것 없어서 조금 찢리기도 하고. ㅎㅎ 여튼!! 다음 호도 열심히 할게요 ^^ 뽕.



김은수 (2학년)

이번에 정식 기자가 된 김은수 기자입니다!!

정식 기자가 돼서 처음 쓰는 글인데, 인터뷰하기 전부터 실수를 해 가지고 죄송해요. 이번 호에 맡은 기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일상다반사'를 나갈까 고민했었는데, 그냥 있기로 했어요. ㅋㅋ 이제 정식 기자가 되었으니까 더 열심히 할게요!!! 신입 기자들도 완전 반가워~!!!!



김예림 (3학년)

'일상다반사' 하면서 인터뷰하러 절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네요. ㅋㅋㅋㅋ 사진 기자가 없어서 조하한 편집장이랑 고산사에 재미있게 다녀왔어요! 이번에 지인 언니도 컴백하고 신입생도 들어오고 '일상다반사'가 더 북적북적해졌어요. 우리 이번엔 계절에 맞게 소식지가 나갔으면 해요. ㅋㅋㅋㅋ 모두모두 수고했고, 특히 내 만화 그리느라 이탈리아 가기 전까지 영혼을 불태운 원가도 수고했어ㅋㅋㅋ ♥ 일상다반사 파이팅!!



손채은 (3학년)

벌써 봄 호가 또 끝났네용!!! 채소 채소!! 우리 일하느라 진짜 수고하뿐ㅠㅠ 진짜. 직접 발로 인터뷰도 다니고!! ㅎㅎㅎ 수고했어. 가정 학습에도 우리 글도 쓰고, 우리 다음부터 좀 쉬운 일을 맡자. ㅋㅋㅋ쿨? 아, 이제 전 논문의 세계로 빠져들겠네요. 그래도 글 열심히 쓸게용ㅇㅇ하. 일상다반사 다들 수고했어~ 아, 기자 후기를 오랜만에 쓰는 기분이라서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ㅋㅋㅋ 그럼, 여름 호에서 만나요!!! 뽕!



장우정 (3학년)

겨울 호가 너무 늦게 나오는 바람에 거의 봄 호랑 시기가 비슷하게 겹쳐서 느낌이 살짝 이상하지만ㅋㅋㅋ, 그래도 이번에 신입 기자도 뽑고 지인 언니도 돌아오고, 분위기 맘에 들어요. 앞으로는 밀리지 않고 꺾꺾 활동합시다~ㅋㅋ 이번 호도 다들 수고 많았어요~





최형규 (3학년)

이번에 너무 노느라 막판에 몰아서 하다 보니 글이 잘 안 나온 것 같네요... 다음부터 몰아 쓰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써야 할 것 같네요...파이팅~!!



한별 (4학년)

베트남을 다녀와서 얼떨결에 고등 교육관 특집 기사를 맡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집장 맡았던 하한 여태까지 수고했고, 새로운 편집장 현영 언니도 힘내유 :) 아 그리고 같이 기사 쓴 돌쇠야, 진짜 수고했고, 너 정말 웃긴 것 같아. 호ㅋㅋㅋㅋ 올 한 해도 잘해 보아요. 아자자자!!!!!!!



하한 (4학년, 편집장)

이번 호 정말 불성실했던 것 같아요. 신입 기자한테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호부터 더 열심히 할게요. 이번 호는 특히나 신입 기자들이 글을 잘 써 줬어요.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최소은 (5학년)

제가 저번 학기에는 글을 쓰지 않아서 이번에 감 잡는데 꽤 애를 먹었습니다.ㅌㅌ 글도 안 쓰다 보니 느낌이 잘 안 오더라고요, 심지어 이번에는 학교가 아닌 외부로 나가 인터뷰하는 과정이어서 여태까지 해 왔던 기본 인터뷰와는 느낌도 많이 달랐구요,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 겨울 호보다는 빨리빨리 준비가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름, 가을, 겨울 호도 이렇게 힘내서 해 봐요~~ 모두 모두 수고하셔어요~



유현영 (5학년)

오랜만에 사실을 맡아서 정신없이 쓰느라 부족한 점도 많고, 그래서 아쉬운 봄 호네요.ㅍㅍ 글 쓰는 연습이나 퇴고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해야겠어요. :-) 필리핀 다녀와서 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조언 많이 해 주신 정환 쌤!! 감사합니다♥♥ 모두들 새 학기 시작하자마자 소식지 만드느라 고생 많았어요. 여름 호까지 빠샤!



홍지인 (5학년)

복학하고 첫 기사네요. 어떻게 시작할지 감이 안 잡혔는데, 이렇게 저렇게 끝나긴 해서 다행이에요...ㅋㅋㅋㅋ 도움 준 정환 쌤이랑 편집장 하한이 고맙고, 급하게 청탁 맡겼는데 좋은 글 써 준 종은이랑 한울이도 진짜 진짜 생큐!!! 인턴십하는 친구들 그림다. 많이 배우고, 많이 많이 느끼고 몸 건강히 돌아와 :

# ☆ 함께 배우며 삶을 나눌 선생님을 모십니다!

제천간디학교는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중고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제천간디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삶을 나눌 선생님을 모십니다.

교육 공동체를 넘어 마을과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를 꿈꾸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초빙 부문 : 교사 1명

□ 분야: 국어

□ 서류 접수: 충원시까지

□ 제출 서류: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수업 계획서 / 경력 증명서(해당자)

- 자기 소개서: 살아 온 배경과 가치관, 지원 동기, 대안교육에 대한 견해, 교육 철학 등

- 경력 증명서: 대안교육 현장에 경험과 이해가 있으신 분

모집 분야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

- 수업 계획서: 개설 가능한 과목에 대한 한 학기 수업 계획서

\* 간디학교 수업은 보통 90분이며, 대상과 내용에 따라 시간 조절도 가능합니다.

중등과 고등이 있으므로 대상 학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간디학교의 수업은 통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나 분야와의 통합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생활을 하면서 학교 공동체를 넘어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활동을 함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급여와 교사 복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서류 접수(이메일): stonechr@hanmail.net (교사 대표 오피스)

문의: 043) 653-5791~2 / www.gandhischool.org / 010-2526-9819

\* 1차 서류 심사 후 면담 일정은 개인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천간디학교지 계간 <간디IN> 2012년 겨울 호(통권 25호) / 발행인 손진근 / 발행 제천간디학교 / 편집장 하완 / 담당교사 김정환 / 기자(학내선) 임소현, 최해민, 한별, 김예림, 손채은, 이기원, 장우정, 최형규, 김민석, 김은수, 안효원 / 편집 및 제작 재민화체 / 발행일 2013년 3월 30일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고리 92-3(우편번호 390-852) 전화 (043)643-5971 ~ 3 팩스 (043)653-5798 / http://gandhischool.org

# 간디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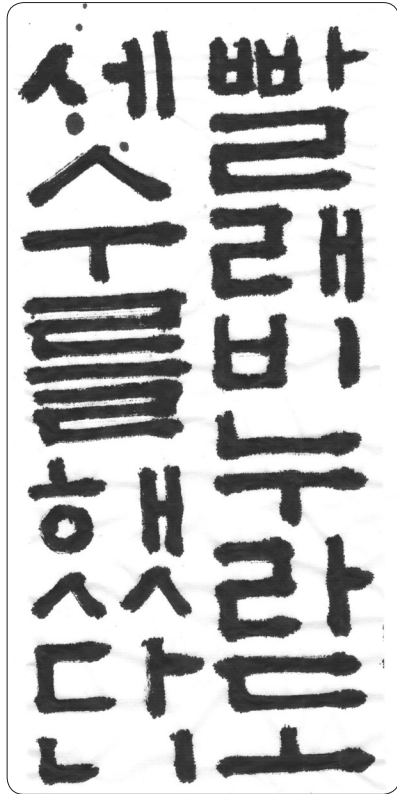
2 0 1 3 봄



더불어 행복한 사람 **간디학교** gandhischool.org







나: “샘 집에 비누가 없어서 빨래비누로 세수했더니 얼굴에 뭐가 나는 것 같아요”  
 현숙 샘(비누 공장 담당): “비누 공장에서 비누 하나 사세요.”  
 나: “비누 공장 비누 너무 비싸요.”  
 현숙 샘: “그럼, 빨래비누 계속 쓰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별(4학년)이가 내 책상에 위와 같은 작품을 올려놓고 갔다.

말은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오는 즐거움 속에서 사는 것 같다.

김정환(일상다반사 담당, 1학년 부담임)



2013년 3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간디공동체를 후원 해주신 고마운 분들입니다. CMS등으로 후원 해주신 이분들의 소중한 마음은 제천간디학교 학생 장학금, 학생 자치 활동비와 특별 활동비, 대안교육 연대 지원금, 덕산 지역 아동단체 운영비로 잘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뜻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MS 449명 480건 6,954,000원 / 입금 후원 4명 7건 150,000원**

(주)두인기전 강경선 강나영 강민택 강상진 강수돌 강순자 강승구 강신현 강영상 강용중 강용택 강지혜 강창석 경동하 고수원 고지철 공치성 박영현 박용호 구경란 구순자 구자민 권숙영 권승호 권영숙 권지현 권호정 금상호 길주연 김갑유 김경민 김경민2 김경순 김경영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태 김구한 김극준 김금선 김남수 김남식 김대석 김도연 김란경 김만우 김명구 김명숙 김명철 김명혜 김명희 김명희 김문석 김문선 김문혁 김문환 김미옥 김미정 김백영 김삼부 김상덕 김상의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태 김송새봄 김수진 김수진2 김승진 김양진 김영경 김영규 김영란 김영삼 김영숙 김영우 김영한 김영희 김옥주 김옥진 김용규 김용남 김용섭 김용철 김유태 김윤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숙 김은영 김은정 김재권 김정라 김정미 김정일 김중성 김중우 김중원 김종태 김지식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진우 김진태 김창석 김태홍 김평호 김학규 김현 김현식 김현일 김현중 김현진 김혜림 김혜숙 김혜영 김혜정 김호연 김희교 김희균 남용기 남호섭 남호섭2 노경수 노경숙 노상규 노선영 노윤희 노희석 덕산LG주유소 도승연 라기호 라성호 류명옥 마미경 마석훈 명보산업개발 문성룡 문신호 문현주 문현주 문효선 문효선2 민병선 박경현 박경호 박기석 박동순 박동필 박명란 박미나 박봉규 박성수 박성열 박영문 김숙정 박영선 박영자 박영희 박용규 박인옥 박장식 박정림 박종주 박진수 박춘순 박채영 박현준 박혜선 박호성 박환홍 박홍식 배승완 배영수 배장산 배필늘 백동민 백동훈 백명기 백미숙 변기영 변소영 변소영 변중희 서홍원 선미식품 성상훈 성정미 성호종합주방 소연섭 손동훈 손병근 손영미 손정현 손주영 송윤순 송지은 신동운 신부순 신영희 신윤숙 신주영 신현덕 신현정 안두용 안미숙 안정환 안주연 안진희 안춘자 안향석 안효진 양병만 양상모 양서희 양수연 양지영 양정숙 양화숙 양후남 어통수산(주) 연계선 오강순 오명택 오병갑 오보환 오세익 오영진 오익문 오지혜 오혜영 오호균 우기백 우성섭 우성호 원정석 원현구 유경오 유성희 유연열 유운모 유원유통 유일상 유준하 유증선 유지상 유춘자 유태영 유태규 유태목 유태영 유태영 윤도희 윤민호 윤보영 윤숙경 윤양수 윤은주 윤한식 윤호선 은종복 이강욱장학금 이강인 이강훈 이경란 이경숙 이경숙2 이광일 이근행 이기하 이낙원 이명조 이명희 이미경 이미경2 이민주 이보완 이상복 이상현 이상훈 이석윤 이선애 이선애2 이선재 이상록 이성호 이소안 이수미 이수경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 이순화 이슬비 이승민 이승섭 이승연 이승욱 이승환 이양환 이예준 이오순 이요훈 이용수 이윤승 이은신 이은희 이재성 이재웅 이정석 이정선 이정섭 이정아 이정태 이정환 이종주 이종태 이종현 이주엽 이주은 이준용 이진석 이진우 이철희 이한진 이현주 이혜림 이호창 이흥구 이화숙 임남규 임반석 임병포 임성희 임영배 임영빈 임은숙 임진희 장규식 장미자 장성윤 장영순 장일경 장진숙 장현섭 장희숙 전미영 손현석 전병민 전병택 전수미 전영복 전완기 전완기2 전종철 전주란 정경훈 정다운 정명숙 정문자 정민희 정병희 정상인 정석현 정성욱 정연경 정연경2 정영수 정영숙 정영환 정이영 정재민 정재윤 정종미 정지은 정태균 정한경 정희정 조경선 조경애 조경희 조규석 조동일 조미숙 조봉석 조상희 조숙자 조영도 조은아 조주환 조찬규 조창아 조철연 지연철 진상정 진성기 진영순 진은주 진정란 차영순 채상병 채서운 채신자 천희진 최경우 최도연 최문택 최상윤 최선자 최선주 최선희 최숙 최연호 최영남 최영준 최용 최인화 최재민 최재화 최재훈 최중현 최진웅 최홍석 하승렬 하영아 하태광 한광덕 한상철 한용택 한현 허미경 허성희 허영순 허인영 형제수산 홍금자 홍기봉 홍수연 홍원희 홍현일 황국덕 황들남 황명숙 황선태 황소연 황인명 황인숙

\*김명철(03 김다운 아버지)님이 환절기 한방 감기약을 아이들과 교사들의 감기 예방을 위해 지어 보내 주셨습니다.

\*방상국(박후조 교사 친구분)님이 A4용지 15,000장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수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혹시 누락되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 CMS 후원 가입을 권유해 주십시오. 기존 회원분들도 학교로 연락 주시면 추가 등록 없이 증액이 가능합니다.

\*소식지 받으실 주소, 후원 내용 변경 등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천간디학교 살림터 043)653-5791/ 고희라 010-2620-8891

